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머 리 말

1.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을 열심히 듣고 충실히 선언함에 있어서 성스러운 공의회는 성 요한의 말씀을 따르는 바이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1요한1,2-3)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트리엔티노 공의회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자취를 따라 하느님의 계시와 그 전달에 관하여 진정한 가르침을 천명하여,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며 믿고, 믿으며 바라고, 바라며 사랑하도록 하려는(주1:성 아우구스티노,"De catechizandis rudibus"4장8과:PL40,316)바이다.

제 1 장

계 시

2. 하느님의 당신 인자와 지혜로 다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성의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며(에페1,9참조) 이로써 인간은, 혈육을 취하신 말씀,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천주성에 참여하게 되었다.(에페2,18;2베드1,4참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골로1,15;1디모1,17참조)이 계시로써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출애33,11;요한15,14-15) 인간과 사귀시며(바룩3,38) 당신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 이 계시의 계획은 업적과 말씀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실현된다. 즉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이 행하신 업적은 말씀으로 표시된 교훈과 사물을 밝혀 주며 확인하고, 말씀은 업적과 거기에 포함된 신비를 밝히 선포한다. 이 계시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 구원에 관한 심오한 진리가 중재자이시며 동시에 모든 계시의 충만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혀진다.(주2:마태11,27;요한1,14와17;14,6;17,1-3;2고린3,16;4,6;에페1,3-14)

3. 하느님의 말씀(성자)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한1,3참조) 보존하시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에게 관한 영원한 증거를 인간에게 보여 주시고(로마1,19-20참조)

천상적 구원의 길을 터 주시고자 하셨을 뿐 아니라 하느님은 원조들에게 처음부터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구속을 약속하시어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주셨고(창세3,15참조) 선업에 항구하며 구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로마2,6-7) 끊임없이 인류를 돌보시었다. 예정하셨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었다.(창세12,2참조) 그리고 성조들을 통하여, 그 후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가르치시고 당신만이 살아 계신 하느님이시오, 섭리의 아버지이시며 정의의 판관이심을 알도록 하셨고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세기를 통하여 복음의 길을 미리 닦아 놓으셨다.

4.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후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1,1-2)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셨고,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간 가운데서 살으시며 인간에게 하느님의 본체에 관하여 말씀하심으로(요한1,1-18참조) 모든 인간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을 취하신 말씀이시며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다"(요한3,34)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구원의 임무를 완수하신 분이시다(요한5,36;17,4참조)(주3:디오네또에게 보낸 편지7,4:Funk판"Patres Apostolici" I ,403면) 예수님은 자신의 전 현존과 출현으로 말씀과 업적, 표시와 기적으로, 특별히 당신의 죽으심과 죽은 이들 가운데로부터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마침내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계시를 완수하시고 하느님의 증거로 확고하게 하셨으니, 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암흑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삶에로 부활시키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크리스챤적 구원의 계획은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1디모6,14;디도2,13참조)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5.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신앙의 복종'(로마16,26;로마1,5;2고린10,5-6참조)을 드러내야 한다. 이로써 인간은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고(주4:제1차 바티칸공의회"가톨릭신앙헌장":DZ1789(3008))하느님이 주신 계시에 자의로 찬동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하느님께 자유로 의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움직여 하느님께로 돌이키시고, 정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찬동하고 믿는 즐거움을 모든 이에게(주5:제2차 오랑제공의회,can.7:DZ180(377);제1차 바티칸공의회"신앙헌장"3장:DZ1791(3010))주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내적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같은 성령께서는 계시에 대한 보다 깊은 이

해심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신앙을 완성시키신다.

6. 하느님은 계시로써 당신 자신과 인류 구원에 대한 당신 성의의 영원한 결정을 드러내 보이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셨다. 즉 하느님은 '인간 지성의 이해를 온전히 초월하는 당신 부요하심에 인간을 참여케 하셨다.'(주6:제1차 바티칸공의회"신앙헌장2장 DZ1786(3005))

거룩한 공의회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신 하느님이 인간 이성의 자연적 빛에 의해서 창조물을 통하여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다.'(로마1,20참조)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인간 이성은 '종교적 진리를 그대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현재의 인간 조건하에서도 모든 이가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아무런 오류도 없이 인식할 수 있다.'(주7:동:DZ1785와1786(3004와3005)는 것을 가르치는 바이다.

제 2 장

하느님 계시의 전달

7. 하느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신 바가 영구히 온전하게 보존되며 모든 세대에 전해지도록 자비로이 계획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며(2고린1,20;3,16-4,6) 주 그르스도께서는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완수하시어 친히 선포하신 그 복음을 구원의 모든 진리와 규범의 원천으로서 모든 이에게 설교하며(주1:마태28,19-20;마르16,15;트리엔티노공의회4차총회"정경에 관한 결정"DZ783(1501) 천상 은혜를 전해 주도록 사도들에게 명하셨다. 이 명령은 충실히 이해되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화와 업적에서 받은 것과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배운 바를 설교와 모범과 교훈으로 전했고 또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구원의 소식을 기록했다.

(주2:트리엔티노공의회동상:제1차 바티칸공의회"신앙헌장"2장:DZ1787(3006)

사도들은 온전하고 생생한 복음이 교회 안에 언제나 보존되기 위하여 후계자로서 주교들을 두고, 그들에게 '자기네들의 가르치는 임무를 넘겨주었다'(주3:성 이레네오,"이단자를 박함"Ⅲ,3,1:PG7,848;Harvey판2권9면 그러므로 성전과 신구약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으로서 지상을 순례하는 교회는 하느님을 계신 그대로 얼굴을 대면하여 뵈올 때까지(1요한3,2) 그 거울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며 모든 것을 받는다.

8. 그러므로 영감을 받은 책에 특별한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도들의 설교는 세계의 종말까지 계속적인 계승으로 보존되어야 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바를 전달하면서 말로나 혹은 서간으로 전해 배운 것을 고수하며(2데살2,15참조) 한번 전해진 신앙을 위하여 투쟁하도록(유다3참조) 신자들에게 권고했다.(주4:제2차 니체노공의회:DZ303(602);제4차콘스탄티노플 공의회10차총회,can,1:DZ336(650-652)사도로부터 전해진 바는 하느님의 백성의 생활을 거룩히 인도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회는 교리와 생활과 전례에 있어서 교회 자신의 모든 것과 또한 교회가 믿는 모든 것을 영구히 보존하며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전한다.

사도들로부터 받은 이 성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주5:제1차바티칸공의회"신앙헌장"4장 신앙과 이성에 관하여:DZ1800(3020) 사실 전해진 사실이나 말에 관해서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한(루가2,19,51참조) 믿는 이들의 관상과 연구에 의해서, 혹은 그들이 체험하는 영적 사실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해서, 또는 주교의 직위를 계승하여 진리의 확실한 은사를 받은 이들의 설교에 의해서 그 이해가 깊어진다. 한 마디로 교회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세기를 통하여 항상 천상 진리의 충만(완전한 이해)을 향하여 전진한다.

교부들의 말씀은 믿고 기도하는 교회의 실생활 가운데 풍부히 흐르고 잇는 이 성전의 생생한 현존을 입증한다.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경전서를 식별하며, 성경 자체가 성전 안에서 한층 더 깊이 인식되고 끊임없이 생활력을 갖는다. 이처럼 전에 말씀하신 하느님은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의 정배와 대화하시며, 복음의 생생한 음성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울려 퍼지고, 성령을 믿는 이들을 온전한 진리에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머물도록 하신다.(골로3,16참조)

9. 그러므로 성전과 성경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상화 공통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하느님의 똑같은 샘에서 흘러나오고 어느 정도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성전은 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그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설교로 충실히 보존하고 설명하며 널리 선전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만으로는 교회가 모든 계시에 대한 확실성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열성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주6:트리엔티노 공의회4차총회:DZ783(1501))

10. 성전과 성경은 교회에 위탁된 하느님의 말씀의 거룩한 단일위탁물이다. 이 위탁물에 집착한 거룩한 온 백성은 그들의 목자들과 일치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 생활, 빵을 나눔과 기도함에 있어 항구히 계속하고 있다.(사도2,42) 이것은 전해진 신앙을 간직하고 실천하며 선언하는 데에 주교와 신자들의 각별한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주7:비오12세교황헌장"Munificentissimus Deus,"1950년11월1일:AAS42(1950)756면에 인용된 성치쁘리아노편지66,8:Hartel판ⅢB,733면:"교회는 사제와 결합된 백성이며, 목자에게 속하는 양 무리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유권적 해석 임무는(주8:"신앙헌장"3장;DZ1792(301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주9:비오12세회칙"Humani Generis,"1950년8월12일;AAS42(1950)568-569면:DZ2314(3886)) 그러나 이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며 성실히 진수라고, 또한 하느님의 계시로 믿어야 한다고 제시된 모든 것을 신앙의 이 단일 위탁물에서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경과 교회의 교도권은 하느님의 가장 현명하신 계획에 의하여,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또한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한 성령의 작용 아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제 3 장

성경의 영감과 그 해석

11. 성경에 포함되고 표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계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과 그 모든 부분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정경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이 책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며(요한20,31;2디모3,16;2베드1,19-21;3,15-16) 하느님이 이 책의 저자이시고 또 이런 것으로서 교회에 맡겨졌기 때문이다.(주1:"신앙헌장"2장계시에 대하여:DZ1787(3006) ;성서위원회 교령,1915년6월18일:DZ2180(3629);EB420;검사성성편지,1923년12월22일:EB499)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하느님은 인간을 선택하셨고, 자기 능력과 역량을 갖춘 그들을 이용하시어(주2:비오12세회칙"Divino afflante Spiritu,"1943년9월30일:AAS35(1943)314면;EB556)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활동하

셨고,(주3:“사람 안에 사람을 통하여”히브1,1과4,7(in):2사무23,2;마태1,22등(per);제1차 바티칸공의회,가톨릭교리에 관한 안건주9:안건집Ⅶ,522면) 그들이 참된 저자로서 하느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만을 모두 다 기록하도록 하셨다.(주4:레오13세회칙 "Providentissimus Deus,"1893년11월18일:DZ1952(3293);EB125)

그래서 영감을 받는 저자인 성경 저술가들이 진술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 진술하신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따라서 성경은 하느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를 확고하게, 성실하게, 그르침 없이 가르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주5:성아우구스티노,"Gen.ad litt."2,9,20:PL34,270-271;편지82,3:PL33,277;CSEL34,2,354면;성 토마스"De Veritate"12문제2항c:트리엔티노 공의회4차총회“정경에 관한”결정:DZ783(1501);레오13세회칙"Providentissimus Deus":EB121,124,126-127;비오12세회칙 "Divino afflante":EB539.)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 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2디모3,16-17)

12. 하느님이 인간을 통하여 인간적 방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주6:성 아우구스티노,"De Civ.Dei" X V II,6,2:PL41,537;CSELXI,2,228) 성경 해석자는 하느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저술가들이 실제로 뜻하려 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의 말로써 하느님이 표시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에 연구해야 한다.

성경 저술가들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문체의 종류’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체, 예언체, 시체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문체에 있어서 진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리 제시되고 달리 설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해석자는 성경 저술가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시대와 문화의 조건하에서 또한 당시에 사용하던 문체의 종류를 이용하여 표현하려 했고, 또 사실 표현한 그 뜻을 알아내야 한다.(주7:성 아우구스티노,"De Doctr.Christ."Ⅲ,18,26:PL34,75-76) 성경 저술가가 글로써 주장하려 한 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술가 시대에 느끼고 말하고 이야기하던 통속적이고 자연적인 방법과 당시에 인간 상호 거래에 흔히 사용하던 방법을 엄격히 알아보아야 한다.(주8:비오13세회칙"Divino afflante":DZ2294(3829-3830);EB557-562)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주해해야 하므로, (주9:베네딕도15세회칙"Spiritus Paraclitus,"1920년9월15일:EB469:성 예로니모,“갈라디아서주해”5,19-21:PL26,417A.) 성경 문구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생생한 성전과 신앙의 유추를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의 내용과 통일성을 충분히 고

려해야 한다. 성경 해석자들의 임무는 이같은 규범을 따라 성경을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설명하여,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교회의 판단이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 해석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해야 할 하느님의 명령과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판단에 속한다.(주10:“신앙헌장”2장 계시에 대하여:DZ1788(3007)

13.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느님의 진리와 성성이 언제나 완전하게 머물러 있으며 영원하신 지혜의 놀라운 ‘친절’이 드러나 있다. 이로서, ‘우리는 말로 못다 하는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하느님이 우리 본성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적절한 말씀을 사용하셨는가를 배우게 된다’(주11: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창세기 주해”3,8(강론17,1):PG53,134,“적절한 말씀”=Attemperatio란 표현은 그레시아어로 synkatabasis.)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느님의 말씀은 마치 그 옛날 영원하신 아버님의 “말씀”이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어 인간이 되셨음같이 인간의 말이 되셨다.

제 4 장

구약 성경

14.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은 인류의 구원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며, 특별한 섭리로 당신 백성을 선택하시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었다. 과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창세15,18참조)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출애24,8) 계약을 맺으셨으며, 선택하신 백성에게 당신이 하나이요 참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이심을 말씀과 업적으로 계시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느님 친히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동안, 하느님의 계획을 나날이 더욱 깊이 더욱 명백히 깨달아, 이방인에게 널리 전하도록 하셨다.(시편21,28-29;95,1-3;이사2,1-4;예레3,17) 성경 저술가들이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한 구원의 계획은 참다운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구약 성경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이 책은 영원한 가치를 간직한다.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로마15,4)

15. 구약의 계획은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메시아 왕국의 내림을

준비하고 미리 알리며(루가24,44;요한5,39;1베드1,10참조) 여러 가지 모상으로 표시하기(2고린10,11참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구원의 시대 이전에 살던 인류 상황에 맞추어서 하느님과 인간에게 관한 지식과, 인간에게 대한 공의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의 태도를 모든 이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 책은 비록 불완전한 일시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진실한 교육 방법을 드러내고 있다.(주1:비오11세회칙"Mit brennender Sorge,"1937년3월14일:AAS29(1937)151면) 따라서 이 책은 하느님께 대한 생생한 감정을 드러내고, 하느님께 관한 숭고한 교훈과 인간 생활에 관한 유익한 지혜와 기도의 탁월한 보고를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 구원의 현의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것을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6.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영감을 주시며 그 저자가 되신 하느님은, 신약이 구약 가운데 숨어 있고, 구약은 신약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현명하게 계획하셨다.(주2:성 아우구스티노,"Quaest.in Hept."2,73;PL34,623)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으나(루가22,20;1고린11,25참조)복음을 설교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가 온전히 인용되어(주3:성 이레네오"Adv.Haer."Ⅲ,2,13:PG7,950;(=25,1:Harvey판2권115면);예루살렘의 성치릴로"교리서"4,35;PG33,497;테오도로 몹스두엔시스,"In Soph."1,4-6:PG66,452D-453A.) 신약에서 그 완전한 의의를 얻고 드러내며(마태5,17;루가24,27로마16,25-26;2고린3,14-16참조)동시에 신약에 또한 빛내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제 5 장

신약 성경

17. 믿는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힘이 되는(로마1,16참조) 하느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탁월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그 힘을 발휘한다. 기한이 찼을 때(갈라4,4) 말씀은 사람이 되시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시어 우리 가운데 살으셨다.(요한1,14참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시고, 업적과 말씀으로 당신 아버지와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또한 죽음과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과 성령의 파견으로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셨다. 홀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계신 그리스도는(요한6,68참조) 땅으로부터 높이 달리시어 모든 이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신다(요한12,32참조) 그러나 이 현의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일으

키며 교회를 모으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지금 똑똑해진 것처럼 전세대에는 똑똑치가 않았다.(에페3,4-6참조) 이런 사건에 대한 신약의 기록은 영구적이며 신적인 증거가 된다.

18. 신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가 가장 뛰어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자, 사람이 되신 말씀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4복음이 사도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주장하였고 또한 지금도 주장하는 바이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설교하던 바를 후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이 믿음의 바탕으로 우리에게 글로 전한 것이다. 그것이 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4복음서이다.

(주1:성이레네오,"Adv.Haer."Ⅲ,11,8:P G7,885:Sagnard판194면)

19.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위에 말한 4복음서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데에 주저치 않으며,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늘에 올림을 받으시던 날까지(사도1,1-2참조) 실제로 행하시고 가르치신 바를 이 복음서가 충실히 전하고 있음을 확고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는 바이다. 사실 사도들은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적으로 교도되고 진리의성령의빛으로(주2:요한14,265;16,13)가르침을받아(주3:요한 2,22;12,16;14,26;16,12-13;7,39) 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를 한층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청중에게 전했다. 성경 저술가들은 4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말로 혹은 이미 글로 전한 것 중에서 추리고, 종합하고, 교회들의 사정에 맞추어 설명하고, 마침내 설교의 형식을 취하여 예수께 대해서 언제나 참되고 성실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였다. (주4:교황청 성경연구원 훈령"Sancta Mater Ecclesia":AAS56(1964)715면) 사실 그들은, 혹은 자신들의 기억과 추억에 의해서, 혹은 '처음부터 사건을 목격하고 말씀에 봉사하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들은 사실들의 "진실됨"을 깨닫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20. 신약 성경의 정경에는 4복음서 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 바오로의 서간과 다른 사도들의 저서도 포함된다. 이 기록들은 하느님의 현명하신 계획에 의하여 주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확인하고 그의 진정한 가르침을 더욱더 밝혀 주고, 그리스도의 신적사업이 지니는 구원의 힘을 설파하고, 교회의 기원과 놀라운 전파를 말하며, 또한 영광스러운 종말을 미리 알려 주고 있다.

사실 주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마태28,20참조) 당신 사도들은 도우셨고 그들을 진리의 충만대로 이끄실(요한16,13참조) 위로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제 6 장

교회 생활 안의 성경

21. 교회는 주님의 성체와 함께 성경을 항상 존중하고, 특별히 거룩한 전례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신자들에게도 준다. 교회는 성전과 함께 성경을 자기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늘 간직하고 있다.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모든 시대를 위하여 단 한번 기록된 것으로서 하느님 자신의 말씀을 변치 않게 전하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 가운데 성령의 말소리를 반영시킨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교 자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힘으로 자라고 지배를 받아야 한다.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당신 자녀들을 언제나 친절히 만나주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신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는 지탱과 힘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마음의 양식, 영신 생활의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히브4,12)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도20,32;1데살2,13참조)고 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말한 탁월한 표현이다.

22.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성경을 가까이할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교회는 당초부터 70인역이라 부르는 구약의 가장 오랜 희랍어역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외의 동방 어역과 라티어역들, 특히 이른바 불가따역을 언제나 존중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준비돼 있어야 하므로, 교회는 자모적 배려로써 각국어로 적합하고 정확하게, 특별히 성경 원문에서 번역 출판되기를 보살피고 있다. 만일 이같은 번역이 기회를 얻어 교회 당국의 승인하에 갈라진 형제들과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3. 사람이 되신 말씀의 정배인 교회는 성령의 교훈을 받아,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끊임없이 기르기 위해서 성경을 나날이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동방과 서방측 교부들의 저서와 거룩한 전례에 관한 연구도 장려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가톨릭 성경학자들과 그 외의 신학자들은 열심히 힘을 같이하여 교도권의 감독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명하여, 가능한 한,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많은 교역자들이 성경의 양식을 효과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정신을 비추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주1:비오12세회칙"Divino afflante"EB551,553,567;교황청 성서위원회 훈령"신학교와 수도자숙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에 관하여,"1950년5월13일:AAS42(1950),495-505면.) 공의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녀들에게 기력을 날로 쇄신하여 교회의 뜻대로 전력을 다해서 착수한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바이다.(주2:비오12세동상:EB569)

24. 신학은 성전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영구적인 기초로 삼고, 거기에서 강한 힘을 얻어 항상 젊어지며 신앙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 현의에 포함된 모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영감을 받았으므로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 연구는 마치 신학의 영혼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주3:레오13세회칙"Providentissimus Deus":EB114;베네딕도15세회칙"Spiritus Paraclitus":EB483) 말씀의 봉사, 즉 사목적 설교, 교리, 각종 크리스챤 교육, 그 중에서도 전례적 설교는 탁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건전한 영양과 거룩한 활력을 받는 것이다.

25. 그러므로 모든 성직자들, 특히 그리스도의 사제들과 그 외에 부제나 전교회장으로서 말씀의 직무를 정당히 이행하는 이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연구하여 성경과 친숙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특별히 거룩한 전례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포하는 풍부한 재화를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사람이 '내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적으로만 헛된 설교자'(주4:성 아우구스티노,강론179,1;PL38,966)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공의회는 또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 특히 수도자들이 자주 성경을 읽음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필립3,8)을 배우도록 각별히 또한 강력이 권하는 바이다. "사실, 성경을 모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주5:성 예로니모,"이사야서 주해"서론:PL24,17;베네딕도15세회칙"Spiritus Paraclitus":EB475-480;비오12세회칙"Divino afflante":EB544.)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 혹은 경건한 낭독이나 이에 적합한 강의를 통해서, 혹은 경건한 낭독이나 이에 적합한 강의를 통해서, 그 외에 교회 목자들의 승인과 지도하에 오늘날 각처에서 실행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꺼이 성경과 친숙해져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동반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주6:성 암브로시오,"De officiis ministrorum" I ,20,88;PL16,50)

주교들은"사도적가르침을위탁받은이들로서"(주7:성이레네오,"Adv.Haer." Ⅳ,32,1:PG7,1071(=49,2),Harvey판2권 255면) 자기들에게 위탁된 신자들이 필요한 주해가 충분히 달려 있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특히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복음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교회의 자녀들이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성경과 친밀해지고 그 정신에 젖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성경을 출판할 때에는 적합한 주해를 붙여 크리스챤이 아닌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조건에 맞추어서 만들고, 또한 영혼의 목자들이나 모든 신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보급하려고 현명하게 힘써야 한다.

26. 이같이 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속히 퍼져서 찬양을 받은 것처럼 어디서나 그렇게 되도록"(1데살3,1) 교회에 맡겨진 계시의 보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야 하겠다. 성체의 현의에 자주 참여함으로 교회의 생명이 성장하듯이 "영원히 머무르시는"(이사40,8;1베드23-25참조) 하느님의 말씀의 대한 존경심이 높아짐으로 영적 생활에 새로운 충격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헌장에서 말한 각 조항과 전체에 성스러운 공의회의 교부들이 찬동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된 사도적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들 성령 안에서 인준하고 결정하고 제정하여, 공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하는 바이다.

머 리 말

전인류 가족과 교회의 깊은 결합

1.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적인 것이라면 신도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신도들의 단체가 인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여 성부의 나라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 따라서 신도들의 단체는 사실 인류와 인류 역사에 깊이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

공의회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가?

2.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먼저 교회의 신비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이제는 교회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저치 않으면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의 존재와 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든 이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다.

따라서 공의회는 인간 세계를 눈앞에 두고 인류 가족 전체와 인류 가족이 살고 있는 주위의 온갖 현실들을 직시하고 있다. 이 세계는 인류 역사의 연출 무대와 같으며 여기 인간의 노력과 실패와 승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도들의 신앙에 입각하면 이 세계는 또한 창조주의 사랑으로 조성되었고 보존되는 것이며,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졌지만,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마귀의 권세가 부서지자, 해방되어 하느님의 계획대로 변혁되었고 언젠가는 마침내 완성될 세계인 것이다.

인간에게 대한 봉사

3. 현대에 있어서 인류는 자신의 발명과 자신의 능력을 경탄하면서도 세계 발전의 현상, 우주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개인 노력과 집단 노력의 의의, 사물과 인간의 궁극 목적 등에 관한 안타까운 문제들로 자주 번민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신앙을 증거하고 해명하는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며 복음의 비칭으로 해명해 주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그 창립자로부터 받은 구원의 힘을 인류에게 풍부히 제공해야만,

하느님의 백성이 속하여 있는 인류 가족 전체에 대한 연대성과 존경과 사랑을 가장 웅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구원되어야 하겠고 인간 사회는 쇄신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인간 전체, 영혼과 육신, 마음과 양심, 지성과 의지의 결합체인 인간이 우리 논술의 중심 "테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인간이 받은 부르심의 숭고함을 선언하고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적 요소를 천명하는 동시에 이 부르심에 부합하는 보편적 형제애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회의 성실한 협력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바이다.

교회는 결코 현세적 야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교회의 소망은 성령의 인도를 그리스도 자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 한 가지 뿐이다. 진리를 증거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구원하며, 봉사를 받기보다는 봉사하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려는 것 뿐이다.

서 론

현대 세계의 인간 상태

희망과 불안

4. 이같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 시대의 특징을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명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세의 인생과 후세의 인생 자체의 의의와 그 상호 관계에 대하여 사람들이 품고 있는 끝없는 의문에 그 세대에 알맞는 방법으로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 세계의 기대와 욕망뿐 아니라 또한 때때로 극적이기도 한 그 성격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겠다. 그런데 현대 세계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묘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오늘 인류는 그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이 시대는 심각하고도 신속한 변화가 점차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이다. 인간의 지능과 창조적 노력에 의해서 일어난 이 변혁들이 이제는 인간 자체를 변혁시키게 되었다. 개인과 단체의 판단과 욕망, 사물과 인간에 대한 사고 방식과 행동 태도에까지 이런 변혁이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 내지 문화적 참된 변혁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은 또한 종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장의 어떠한 위기에서나 마찬가지로 이런 변혁에도 중대한 난관이 수반된다. 예컨

대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크게 확대하면서도 그 능력을 언제나 충분히 지배하지는 못한다. 또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데를 파고들면서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얻지 못한다. 사회 생활의 법규를 점차로 보다 명백히 발견하면서도 사회생활에 2방향은 제시하기를 주저한다.

인류가 오늘과 같은 재화와 능력과 경제력을 누려 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렇지만 세계 인구의 상당한 수는 아직도 기아와 빈곤에 신음하고 있으며 문맹자도 적지 않다. 인간이 오늘과 같이 강한 자유 의식을 가져 본 일도 일찍이 없었건만 다른 편으로는 사회적 내지 심리적 노예화의 새로운 형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는 필연적 연대성을 가지고 서로 종속되어 하나를 이룬다는 의식은 생생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힘의 대립으로 극도의 분열을 자아내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인종, 이념 등의 극심한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전쟁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사상의 교류는 증대되고 있지만, 중요한 개념을 표현하는 말마디 자체는 서로 다른 이념 속에서 아주 다른 뜻을 가진다. 현대 세계는 보다 완전한 현세 생활의 건설을 열심히 추구하지만 정신적 성장의 노력이 수반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현대상황이 복잡하므로 현대인의 상당한 수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새로운 발명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모르고 있다. 따라서 희망과 불안이 엇갈리는 사이에서 현대인은 사물의 현재 진행에 대하여 스스로 의문을 품으며 안정을 찾지 못한다. 이 사물의 진행은 사람들에게 대답하라고 도전해 오며 해답을 강요한다.

심각한 변화

5. 오늘의 정신적 동요와 생활 조건의 변화는 보다 광범한 변혁에 직결되어 있다. 정신 교육에 있어서는 수학과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 더욱 중요시되고 실천면에 있어서는 과학의 소산인 기술이 날로 더욱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 이런 과학적 정신이 과거와는 다른 문화 형태와 사고방식을 낳아 주었다. 기술의 발전은 이미 지구의 면모를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우주정복을 시도하게끔 되었다.

인간의 지성은 시간에 대해서까지 그 지배권을 확대시켰다. 역사지식으로 과거를 지배하고 추정기술과 계획설계로 미래를 지배하게 되었다.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진보는 인간이 자신을 깊이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

여 사회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인간을 도와 준다. 동시에 인류는 인구 증가의 예측과 그 조절에 대하여 날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진다.

역사의 흐름도 각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인류사회는 이제 하나의 공동 운명을 지니게 되므로 이미 여러 가지 역사권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인류는 정적세계관에서 동적, 혹은 발전적 세계관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여기서 새로운 분석과 새로운 종합을 요구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방대하게 야기된다.

사회 질서의 변화

6. 이런 변화로써 족장들의 대가족, 씨족, 종족, 부락 따위의 전통적 지방 공동체나 여러 가지 집단과 사회의 인간 관계는 날로 더욱 격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공업화된 사회 형태는 점차로 확대되어 어떤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동시에 수 세기 동안 계속된 사회 생활의 개념과 조건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잇다. 비슷하게, 도시와 도시인의 증가나 혹은 농촌에까지 도시 생활이 옮아가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문명과 그 매력은 증가되고 있다.

발전을 거듭하는 새로운 매스미디어는 사건들을 알리며 사상과 감정을 극도로 신속 광범하게 전파하여 많은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써 이주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거기서 자기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도 경시할 수 없다.

이처럼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의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증가되며 동시에 "사회화"(社會化=Socializatio) 자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마땅한 인격의 성숙과 참된 인간관계("인간화"=人間化=personalizatio)를 촉진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진화는 이미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에 있어서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 있지만 공업화와 도시화의 혜택을 누리려고 희망하는 후진국에 있어서도 이런 움직임이 없지 않다. 이런 백성들은, 특히 옛 전통을 가진 백성들은 보다 성숙하고 보다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다.

심리, 윤리, 종교상의 변화

7. 사고 방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기존가치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다. 더욱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러하여 젊은이들은 가끔 인내할 줄 모르고 불만을 참지 못하여 때로는 반발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그들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중요성을 자

각하고, 될 수만 있다면 속히 사회 생활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이 때문에 부모나 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날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사실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제도와 법규, 사고 방식과 생활 감정은 오늘 일어나는 현실에 언제나 잘 맞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행동태도와 행동기준에 있어서 중대한 혼란이 야기된다.

이같은 새로운 사태는 드디어 종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날카로와가는 비판력이 마술적인 세계 개념과 이직 남아있는 미신적 요소를 종교에서 깨끗이 씻어 버리고 보다 인격적이며 활동적인 신앙을 날로 더욱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대한 보다 생생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종교 생활 실천에서 이탈하는 대중이 격증하고 있다. 옛날과는 달리 신이나 종교를 부정하거나 거기서 이탈한다는 것이 이제는 예외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것도 아니다. 오늘에 와서는 가끔 과학 진보나 새로운 인간주의의 필연적 요청같이 여기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지역에 있어서 철학 사상으로만 표현될 뿐 아니라, 문학, 예술, 인문과학과 역사의 해석, 심지어 국법에까지 널리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동요되고 있다.

현대 세계에 나타난 불균형

8. 이렇게 빨리 또 가끔 무질서하게 발전하는 변혁과 조화 잃은 세계에 대한 예리한 의식은 모순과 불균형을 낳거나 증가시킨다.

인간 내부에 있어서도 현대적 실천이성과 이론적 사색 사이에 가끔 불균형이 생겨 이론적 자기 지식의 총체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원만히 종합하지도 못한다. 또한 실리적 노력과 도의심의 요구 사이에도 균형이 없고, 집단 생활 조건과 개인의 사색 생활, 특히 개인적 관상 생활의 필수조건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는 수가 많다. 드디어 인간 활동의 전문화와 사물의 전체적 전망 사이에도 불균형이 생긴다.

가정에 있어서는 인구 증가, 경제 및 사회 생활의 여러 조건들의 중압, 세대차에서 생기는 난관, 남녀간의 새로운 사회 관계 등이 가정의 조화를 깨뜨리고 만다.

또한 여러 종족들 사이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계층 사이, 부강한 민족과 빈약한 민족 사이, 평화를 도모하려는 욕망에서 여러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 기구와 이념 선전의 야심이나 국가 혹은 단체의 집단적 이기주의 사이에 대단한 불균형이 개재한다.

그 결과로 상호 불신과 반목과 분쟁의 불행이 생기며 인간 자신이 이런 불행의 원인

인 동시에 제물이 되고 만다.

보다 보편적인 인류의 소망

9. 그러면서도 인류는 피조물들에 대한 그 지배력을 날로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또 강화해야 한다는 확신이 커져간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인간에게 봉사케 하고 개인과 집단이 본연의 존엄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확신도 커져 가고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분배로써 제 재산을 착취당했다는 의식이 강해졌고 그 재산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와 최근에 독립한 신생국가들은 정치 면에서뿐 아니라 경제 면에 있어서도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려 하며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의 역을 자유로이 연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더 발릴 발전하는 부강한 국가들과 저개발국 사이의 격차는 날로 커지기만 하고 전자에 대한 후장의 경제적 의존도는 높아만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아에 신음하는 백성들은 부요한 백성들을 향해 도움을 청한다. 남녀 동등권을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동등권을 요구한다. 직공들과 농민들은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노동으로써 인격을 발전시키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생활 조직에도 참여하기를 요망한다. 이제야 비로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문명의 혜택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고루 베풀어질 수 있고 또 베풀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모든 백성이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 요청 이면에는 보다 깊고 보다 보편적인 요망이 내포되어 있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 품위에 알맞는 충족하고도 자유로운 생활, 다시 말해서 현대 세계가 사람들에게 풍부히 제공하는 온갖 가능성을 스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에 굶주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하나의 세계적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날로 더욱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고 보면 현대 세계는 강하면서도 약하고 최대의 선을 다할 수도 있고 최대의 악을 저지를 수도 있으며, 자유와 예속, 진보와 퇴보, 사랑과 증오의 문이 동시에 열려 있다. 그러나 인간이 발굴한 힘들이 인간을 괴롭힐 수도 있고 인간에게 봉사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힘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은 자문하게 된다.

인류의 심각한 의문

10. 사실 현대 세계가 고민하는 불균형은 인간 마음속에 뿌리박힌 보다 근본적인 불균형에 직결되어 있다. 과연 인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 여러 가지 제한성을 체험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제 욕망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을뿐더러 보다 고차적인 생명에로 불리었음을 느낀다. 인간은 또한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언제나 취사선택을 강요당한다. 더구나 인간은 약하고 또 죄인이므로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원하는 일을 행치 않는 수도 드물지 않다. 요컨대 인간은 자신 안에서 이미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의 많은 불화도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적 물질주의에 젖은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같이 극적인 상황을 똑똑히 이해하기를 외면하고 혹 불행에 짓눌린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사물의 가지가지 해석가운데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써만 참되고 완전한 인류 해방을 기대하며 미래에 지상에 건설될 인간 왕국이 자기 마음의 온갖 소망을 채워 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가진다. 또 인생의 의의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인생의 실존 자체는 고유한 의의라곤 도무지 없지만 인간의 재능만으로써 인생에 전 가치를 부여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용감성을 찬미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세계의 현 발전을 직시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재하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승리는 또 무슨 소용이냐? 인간은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으며 또 사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지상생활이 끝나면 무엇이 따를 것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사람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사람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셨음을 교회는 믿는다. 따라서*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천하에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믿는다. 동시에 교회는 인류 역사 전체의 열쇠와 중심과 목적이 스승이신 주님 안에서 발견됨을 믿는다. 교회는 또한 이 모든변천 속에도 불변의 것이 많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그 불변의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존재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맏이로 나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공의회는 인간의 신비를 비추어 주고 현대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협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제 1 부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인간

대답을 요구하시는 성령의 부르심

11. 하느님의 백성은 세상에 충만하신 주의 성령께 인도되고 있음을 믿으며 현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직면하고 있는 사건과 요구와 염원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현존과 그 계획의 참된 표지는 과연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신앙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로운 빛으로 밝혀 주고 사람을 부르신 하느님의 의향을 완전히 드러내 주며 따라서 참으로 인간적인 해결에로 정신을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공의회는 먼저 현대에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가치들을 신앙의 빛으로 판단하여 그 원천이신 하느님께 연결시키려 한다. 이런 가치들은 하느님께 받은 인간 재능에서 오는 것인 만큼 매우 좋은 것이다. 인간 마음의 부패 때문에 가끔 바른 질서에서 이탈하므로 그것은 정화되어야 하겠다.

교회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대 사회 건설에 무엇을 권고해야 할 것인가? 세계에서의 인간 활동은 무슨 궁극적 뜻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답이 있어야 하겠다. 여기에 해답을 줌으로써 인류와 그 속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 서로 봉사한다는 것이 보다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종교적이며 따라서 극히 인간적임이 명백해질 것이다.

제 1 장

인간의 존엄성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12. 세상 만물은 인간을 그 중심과 정점으로 삼고 인간에게 질서지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거의 일치한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제 자신에 대해서 수만 가지 견해를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주장했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가끔 인간을 절대적 규범으로 들어 높이는가 하면 반대로 절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는 것은

의문과 불안뿐이다. 교회는 이런 난관을 알고 있으며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 난관을 해명해줌으로써 인간의 참된 상태를 밝히고 인간의 허약성과 동시에 그 존엄성과 궁극 목적을 인식시킬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창조되었고 창조주를 알아 사랑할 수 있으며 창조주로부터 세상 만물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어(주1:창세1,26;지서2,23)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주2:전도17,3-10)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시편8,4-6)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외롭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시초부터 그들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창세1,27) 그들의 공동 생활이 인격적 결합 형태의 시초를 이루었다. 인간은 깊은 본성에서부터 사회적 존재요, 남과 관계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고 그 자질을 발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1,31)고 다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죄(罪)

13.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의로운 지위에 두셨으나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역사의 시초부터 제 자유를 남용하였고 하느님께 대립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제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알았지만 하느님께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않았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흐려져 창조주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섬겼다.(주3:로마1,21-25) 하느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실은 우리 경험과 일치한다. 과연 인간은 제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이 악에 기울어져 있고 착하신 창조주로부터는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은 가끔 하느님을 자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궁극 목적에로의 당연한 질서마저 파괴하고 자신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의 조화도 깨뜨렸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 안에서 이미 분열되었다. 이 때문에 개인 생활이나 집단 생활이나 인간 생활 전체가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사이의 극적인 싸움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악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음을 발견하고 각기 어떤 사슬에 묶인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힘을 주시려고 주께서 친히 오시어 인간을 내적으로 재생시키시고 인간을 죄의 노예로 삼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자"(요한12,31)을 밖으로 쫓아내시었다.(주4:요한8,34)그런데 죄는 인간을 작게 만들고 인간의 완성을 방해한다.

인간들이 체험하는 숭고한 부르심과 심각한 비참은 이 계시의 빛 속에서 그 궁극적 이유를 발견한다.

인간의 구성

14. 육체와 영혼으로 단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간은 그 육체적 성격으로도 이미 물질세계의 요소들을 한 몸에 집약하고 있으므로 물질세계는 인간을 통해서 그 정점을 도달하며 인간을 통해서 그 자유로운 찬미를 창조주께 읊어드리고 있다.(주5:다니3,57-90) 따라서 인간은 그 육체적 생명을 천시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창조된 그 육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므로 좋고 영예로운 것으로 알아야 하겠다. 그러나 죄로 상처 받은 인간은 육체의 반항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육체로도 하느님을 찬미하고(주6:1고린6,13-20) 육체가 마음의 악한 경향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물질 이상의 존재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은 자연의 한 조각이거나 인간사회의 한 무명요소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도 속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 내적 품위로써 일체의 물질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속으로 돌아갈 때 이 깊이에 도달하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이 기다리고 계시며(주7:1사무16,7;예레17,10) 하느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앞에서 영적 불멸의 혼을 긍정하게 될 때 인간은 단지 물리적 내지 사회적 조건의 소산인 덧없는 환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깊은 진리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성의 존엄성, 진리와 예지

15. 인간이 지성을 가졌기에 만물을 초월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다. 인간지성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빛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인간의 재능은 세기를 토한 꾸준한 노력으로 자연과학, 기술, 예술의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특히 물질세계의 탐구와 정복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인간은 언제나 보다 깊은 진리를 찾아 헤매었고 또 그것을 발견하였다. 사실 인간 지능은 현상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죄의 결과로 어느 정도 흐려지고 약해지기는 하였지만 인식대상의

실체를 참으로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지적 본성은 또한 예지로써 완성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예지는 인간의 정신을 부드럽게 인도하여 진리와 선을 탐구하며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므로 인간은 예지를 힘입어 유형한 세계를 통하여 무형한 세계로 옮아가는 것이다.

인간이 발명하는 온갖 새로운 것들을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대는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런 예지를 요구하고 잇다 더 높은 예지를 갖춘 사람들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미래 운명은 위험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예지로는 풍요한 여러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또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 계획의 신비를 관상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이다.(주8:전도17,7-8)

양심의 존엄성

16. 인간은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준법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법이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며 행하고 악은 피하도록 사람을 타이르고, 필요하면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피하라"고 마음 귀에 들려준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 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 법을 따라 인간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주9:로마2,15-16)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방이요 인간이 저 혼자서 하느님과 같이 있는 지성소이며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주10:비오12세의 "젊은이들의 그리스도교적 양심교육에 관한"방송,1952년3월23일;AAS44(1952)p.271) 양심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는 그 법을 놀라운 방법으로 밝혀 준다.(주11:마태22,37-40;갈라5,14)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윤리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른 양심이 우세하면 할수록 개인이나 집단이 맹목적 방종에서 더욱 멀어지고 객관적 윤리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불가항력의 무지 때문에 양심이 오류를 범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그 존엄성을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거나 죄의 습관으로 야심이 점차로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자유의 우월성

17. 인간은 오직 자유로써만 선을 지향할 수 있다. 현대인은 이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열심히 추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가끔 자유를 잘못 옹호한다. 자신을 즐겁게만 하는 일이라면 악이라도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방종까지도 자유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인간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을 말해 주는 표지인 것이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제 의사에 맡겨 두시기를"(주12전도15,14)원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원으로 창조주를 찾아 창조주를 따르며 자유로이 완전하고 행복한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의식적 자유 선택에 의하여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즉 맹목적 본능이나 순 외적 강박에 의하지 않고 인격적인 내적 동기에 의하여 움직이기를 요구한다. 인간이 사욕의 온갖 악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유로이 선을 선택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유효 적절한 수단을 슬기롭게 마련할 때 인간은 이런 존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죄로 손상되었으므로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느님께로의 지향을 완전히 행동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인간은 각기 행한 선악을 따라 하느님의 법정에서 일생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주13:2고린5,10)

죽음의 신비

18. 죽음 앞에서 인간 운며의 수수께끼는 절정에 달한다. 인간은 아픔과 꺼져 가는 육체의 파멸을 괴로워할 뿐 아니라 영원한 소멸을 두려워한다. 인간 실존의 완전한 파멸과 결정적 끝장을 싫어하고 거부할 때 마음의 본능에 따른 이 판단은 옳은 것이다. 인간이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영원의 씨는 순수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에 저항하여 일어설 수밖에 없다. 기술의 모든 노력이 제아무리 유익하다 해도 인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 생물학적 수명의 연장은 마음속깊이 뿌리박힌 고차적 생명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떠한 상상도 죽음 앞에서는 맥없어지지만 하느님의 계시를 들은 교회는 인간이 범죄치 않았던들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며,(주14:지서1,13;2,23-24;로마5,21;6,23;야고1,15) 죄로 잃었던 구원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세주의 은덕으로 인간이 다시 회복할제 죽음은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가르친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성 전체로써 당신과 영원히 결합하여 당신 불멸의 생명을 나누어 받도록 인간을 이미 부르셨고 거듭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 친히 당신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거두신 승리다.(주15:1고린15,56-57) 따라서 확고한 논증에 바탕을 둔 신

앙은 깊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 주며 미래 운명에 관한 그의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 그와 동시에 신앙은 또한 죽음이 먼저 앗아간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할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들은 이미 하느님 곁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무신론의 형태와 근원

19. 인간 존엄성의 가장 숭고한 이유는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하여 불리었다는 데에 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하느님과 더불어 대화하도록 초대 받는다. 사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탱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느님의 이 사랑을 자유로이 인정하며 자신을 창조주께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이 진리를 따라 산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이같은 하느님과의 깊은 생명의 결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배격하고 있다. 그래서 무신론은 현대의 극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하겠고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다. 무신론이란 말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을 지칭한다. 명백히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신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신에 대한 문제 자체가 전혀 무의미해지도록 무제를 다루는 방법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주제넘게도 자연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만사는 과학적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전혀 아무런 절대적 진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을 지나치게 예찬한다. 그들은 신 부정보다 인간 긍정에 급급한 것같이 보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제멋대로 상상해서 신을 그려놓고 그 신을 부정하지만 그런 신은 결코 복음에 나타난 신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신에 관한 문제를 취급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종교적 불안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무신론은 세상 죄악에 대한 격심한 반발에서도 생기고 혹은 인간적 가치를 부당하게도 절대시하여 그것을 신격화하는 데서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한 현대 문명은, 물론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지상 사물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가끔 하느님께로의 접근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종교 문제를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물론 탓을 면할 길이 없겠지만 가끔 신앙자들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무신론이란 전체적으로 보아서 자체 안에 그 근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 원인

중에는 종교에 대한 비판적 반동, 어ㄸㅓ너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무신론 발생에 적지 않은 책임을 신앙자들이 질 수도 있다. 자신들의 산앙 배양을 등한시하거나 교리를 잘못 설명하거나 종교 생활, 윤리 생활, 사회 생활 면에서 결점을 드러냄으로써 하느님과 종교의 참 모습을 보여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가려 버리기 때문이다.

체계적 무신론

20. 현대 무신론은 흔히 체계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인간의 자주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에게 대한 어떠한 예속에도 저항해 보려는 것이다. 이런 무신론의 창도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목적이며 인간역사의 유일한 창조자요 조화신이라는 점에 인간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만무의 창조주며 목적인 신의 긍정과 조화될 수 없으며 적어도 신의 긍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들은 고집을 세운다. 현대의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만능 의식은 이런 학설을 옹호할지 모른다.

현대 무신론의 여러 형태 중에서 인간의 구원을 경제적 내지 사회적 해방에서 기대하는 무신론의 형태를 무시할 수 없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이런 인간 해방에 장애거리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종교가 화황된 후세 생명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주며 인간을 지상 국가 건설에서 외면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학설의 신봉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종교를 맹렬히 공격하며 특히 청소년 교육 면에서 공권이 장악한 모든 탄압 수단을 다하여 무신론을 선전하고 있다.

무신론에 대한 교회의 태도

21. 하느님과 인간에게 충실히 봉사하는 교회가 인간지성과 공통경험에 반대될 뿐 아니라 인간을 고귀한 천품에서 추락시키는 이같이 유해한 이론과 운동을 마음 아파하면서 단호히 배격하는 바는 과거와 마찬가지다.

(주16:비오11세의 회칙"Divini Redemptoris,"1937년3월19일;AAS29(1938)p.65-106;비오11세의 회칙"Ad Apostolorum Principis,"1958년63월29일;AAS599(1958)p.601-614;요한23세회칙"Mater et Magistra,"1961년5월15일;AAS53(1961)p.451-453;바오로6세의 회칙"Ecclesiam Suam,"1964년8월6일;AAS56(1964)p.651-653)그러나 교회는 신 부정의 숨은 이유를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또 교회는 무신론이 일으키는

문제들의 중요성을 의식하며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에 이끌려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또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신 긍정이 인간 존엄성에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었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지성과 자유를 갖춘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더욱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의 일치와 그 행복에 참여하도록 불리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세상 종말에 대한 희망이 지상 사명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동기를 주어 지상사명 완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와 반대로 하느님께 기초를 두지 않고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게 되면 오늘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심한 상처를 받을 것이며 생명과 죽음, 죄와 고통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아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막연하게 인식한 미해결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사실 인간이면 누구나 일정한 시기에 특히 인생의 중대한 사건 앞에서 위의 의문을 피할 수는 없다. 이 의문에 완전하고 확실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을 보다 높은 사색과 보다 겸허한 탐구에로 부르신 하느님 한 분 뿐이다.

무신론을 시정하는 길은 오로지 올바로 해석된 교리오, 교회와 그 지체들의 완전한 생활 뿐이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 정화하며 하느님 아버지와 사람이 되신 성자를 현존시켜 드리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주17:교회헌장제1장n.8:AAS57(1965)p.12) 이것은 무엇보다도 생생하고 성숙한 신앙, 즉 난관을 밝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신앙의 증거로써 이루어진다. 이같이 찬란한 신앙의 증거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미 보여주었고 아직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신앙이 신자들의 전 생활, 신자들 속세 생활에까지 침투하고 정의와 사랑을 특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실천케 함으로써 그 풍부한 활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마침내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 주기 위하여 가장 요긴한 것은 신자들의 형제적 사랑이다. 즉 복음의 신앙의 펴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며(주18:필립1,27)자신들을 일치의 상징으로 드러내는 형제적 사랑이다.

교회는 비록 무신론을 절대적으로 배격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건설하는 데에 함께 노력해야 함을 진심으로 선언하는 바이다. 이 일은 물론 성실하고 현명한 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의 위정자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치 않고 부당하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는 바이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전당을 건설할 수 있는 현실적 자유를 요구한다. 무신론자들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검토해 보도록 친절하게 초청하는

바이다.

하느님께 불린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보다 고상한 목적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교회의 메시지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소망과 일치한다는 것을 교회는 명백히 알고 있다. 교회의 메시지는 인간을 약화시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빛과 생명과 자유를 쏟아 주며 따라서 이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주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나이다."(주19: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I ,1;PL32,661)

새 인간 그리스도

22. 사실, 혈육을 취하신 "말씀"의 신비를 떠나서는 인간의 신비가 참되게 밝혀지지 않는다. 첫째 인간 아담은 미래의 인간,(주20:로마5,14:떼르뚤리아노,"육신 부활론",6, "흙에 주어졌던 형체는 인간 그리스도를 표상하였다.":Pl2,282;CSEL47,p.33,1,12-13) 즉 주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새 아담 그리스도는 성부와 그 사랑의 신비를 알려 주는 그 계시로써 인간을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고 인간이 높이 불리었음을 발견 주신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근원을 두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점을 도달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골로1,15)(주21:2고린4,4)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담의 후손들엑 최초의 범죄 때부터 이지러졌던 하느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 소멸시키지 않으셨으므로(주22:콘스탄티노플 제2공의회규정7,"하느님의 말씀이 인간 본성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인간본성이 하느님의 말씀에 흡수된 것도 아니다.":Denz219(428);동 제3공의회에서도 "사실 그의 성스럽고 깨끗한 인간성이 신화했지만 파괴되지 않고 그 고유의 상태와 형상으로 머물러 있었듯이"라 했다.:Denz291(556);칼체도니아 공의회에서도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갈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했다.:Denz148(302).) 우리 안에서도 인간 본성은 자동적으로 고상한 품위에까지 들어 높여졌다. 성자께서는 사실 당신의 화신으로 어떤 의미에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일치시키신 것이다.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지력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주23:콘스탄티노플 제3공의회,"이리하여 인간으로서의 의지는 신화되었지만 파괴되지 않았다.:Denz291(556))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었다. 동정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으로 우리 중의 한 사람이

되셨으며 죄를 빼고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셨다.(주24:히브4,15)

무죄한 어린양으로서 자유로이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 주셨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들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으며(주25:2고린5,18-19;골로1,20-22) 마귀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 내시어 우리 각 사람이 사도 바오로와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2,20)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 발자취를 따르도록 모범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주26:1베드2,21;마태16,24;루가14,27)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어 우리가 그 길을 따르면 생명과 죽음이 모두 성화되어 새로운 뜻을 가지게 하셨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이로 나신 성자의 모습을 닮은(주27;로마8,29;골로3,10-14) 그리스도교 신자는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로마8,23)받아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주28:로마8,1-11) "상속을 보증"(에페1,14)이신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로마8,23)까지 전인간이 내적으로 쇄신된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음 몸까지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로마8,11)(주29:2고린4,14) 물론 그리스도교 신자는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악을 거슬러 싸우고 죽음가지도 각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는 빠스카 신비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은 못브으로써 벅차오르는 희망을 품고 부활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주30:필립3,10;로마8,17)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은총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모든 선의의 인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주31:교회헌장 제2장 n.16:AAS57(1965)p.20) 사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주32:로마8,32) 인간이 불린 궁극 목적도 사실은 하나뿐이며 그것인 신적인 것이므로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만 아신 방버브로 모든 사람에게 빠스카 신비에 참여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인간의 신비는 이와 같이 위대한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계시가 믿는 이들에게 밝혀 주는 진리앞.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죽음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그의 복음을 떠나서는 이 수수께끼가 우리를 질식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써 당신 죽음을 쳐 부수시고 부활하셨으며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주33:비잔틴의 빠스카 예식) 이로써 우리는 성자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은총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주34:로마8,15;갈라4,6;요한1,22;3,1-2)

제 2 장

인간 공동체

공의회의 의도

23. 현대 세계의 중요한 양상 중의 하나는 인간들의 상호 관계가 다양화하고 있다는 그것이며 그 발전에는 현대의 기술 진보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들의 형제적 대화는 이런 진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데서 인격과 인격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거기에는 인격들의 완전한 정신적 존엄성에 대한 상호 존경이 요구된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런한 인격과 인격의 일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크게 공헌하는 동시에 창조주께서 인간의 정신적 내지 윤리적 본성에 새겨 주신 사회 생활의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교회의 교권이 반포한 최근의 문헌들이 인간 사회에 관한 교리를 상세히 설명하였기에(주1:요한23세회칙"Mater et Magistra,"1961년5월15일:AAS53(1961)p.401-464;회칙"Pacem in terris,"1963년4월11일:AAS55(1963)p.257-304;바오로6세회칙"EcclesiamSuam,"1964년8월6일:AAS56(1964)p.609-659.) 공의회로서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만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바탕을 계시의 빛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 다음에 현대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상술하려 한다.

24. 만민을 아저지같이 돌보시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서로 형제같은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셨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사도17,26) 사람은 모두 단 하나의 같은 목적에로 불리었으며 그 목적은 하느님 자신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첫째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성경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대한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로마13,9-10;1요한4,20) 날로 더욱 서로의 의존성이 높아가는 인간들과 날로 더욱 하나로 뭉쳐지는 세계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17,21-22)하시며 성부께 기도바치실 때 인간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시야를 열어 주시며 하느님의 자녀들의 일치 사이의 어떤 유사성을 시사하신 것이다. 이 유사성은 이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줌으로써만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있음을 밝혀 준다.(주2:루가17,33)

개인과 인간 사회의 의존성

25. 개인의 인격 향상과 인간 사회의 발전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사회성에서 드러난다.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 생활을 꼭 필요로 하기에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 아니어서는 안된다.(주3:토마스 아퀴나스,1Ethic.Lect.1.) 그러므로 사회 생활은 인간에게 덧붙여진 무엇이 아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상호 봉사, 형제적 대화 등을 통해서 자기 능력에 상응한 발전을 이룩하고 불린 목적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결합 중에서 가정이나 정치적 공동체 같이 어떤 것은 깊은 인간 본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적당한 것이며 또 어떤 것은 모름지기 인간의 자유의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현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 관계와 상호 의존성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다. 여기서 공적 혹은 사적 각종 회와 제도가 마련된다. 사회화라 불리는 이 현상은 위험도 없지 않지만. 개인의 자질을 긍정하고 신장시키며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고있다.(주4:“어머니와교사”:AAS53(1961)p.418;비오1·1세·회칙"QuadragesimoAnno":AAS23(1931)p.222이하)

인간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면에서까지도 사회 생활에서 얻는 바가 많다고는 하지만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 속에 젖어서 살고 있는 사회 환경 때문에 선에서 멀어 ㅣㅈ고 악에로 끌리고 잇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 질서의 혼란이 부분적으로는 경제, 정치, 사회구조의 긴장에서 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보다 깊은 근원은 인간의 교만과 이기주의에 잇으며 이것은 또한 사회 환경에까지 해독을 미친다. 죄의 결과로 사회 질서가 혼탁해졌으므로 날 때부터 악에 기울어져 있는 인간은 죄에 대한 새로운 유혹을 당하게 마련이며 힘찬 노력과 은총의 도움 없이는 이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공동선의 촉진

26. 공동선이라고 하면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체를 말한다. 그런데 상호 의존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날 공동선은 더욱 세계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인류 전체에 관계되는 권리와 의무까지를 내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떤 집단이나 다 다른 집단들의 필요와 정당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인류 가족 전체의 공동선까지를 고려해야 한다.(주5:"어머니와교사":AAS53(1961)p.417)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 인격의 고귀한 존엄성에 대한 자각도 커져간다. 개인 인격은 만물을 초월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식주, 신분 선택의 자유와 가정 형성의 권리, 교육과 노동에 대한 권리, 명예와 존경에 대한 권리, 정당한 보도를 들을 권리, 자기 양심의 바른 규범을 따라 행동할 권리, 사생활을 수호할 권리, 종교적 분야까지 포함해서 정당한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와 사회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복지를 목적삼아야 한다. 사물의 질서가 인간 질서에 종속될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주 친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주6:마르2,27)하실 때에 이 진리를 인정하신 것이다. 사회 질서는 날로 발전해야 한다. 진리에 바탕을 두고 정의 위에 건설되어 사랑으로 활기를 띠어야 한다. 사회 질서는 또한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날로 더욱 인간적인 균형을 잡아야 한다.(주7:"지상의 평화":AAS55(1963)p.266)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신의 쇄신과 더불어 광범한 사회 변혁이 있어야 하겠다.

기묘한 섭리로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시며 땅의 면모를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성령이 이런 발전을 도와 주신다. 또 복음의 누룩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억제치 못할 요청을 인간들 마음속에 불러 일으켰고 지금도 불러 일으킨다.

인간에게 대한 존경

27. 공의회는 실제적이며 긴급한 결론으로 인간에게 대한 존경을 강조한다. 각 사람은 이웃을 한 사람도 예외없이 "또 하나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웃의 생활과 그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기에 필요한 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니(주8:야고2,15-16) 가난한 라자로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부자를 본받아서는 안된다.(주9:루가16,18-31)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그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 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노인, 불의하게 천대받는 외국인 노동자, 피난민, 불법 혼인에서 태어나 부모의 죄 때문에 탓없이 억울하게 고생하는 사생아,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것이다."(마태25,40)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우리 양심을 재촉하는 굶주린 사람, 이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 줄 의무가 있다.

또 온갖 종류의 살인, 집단 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역하는 모든 행위와, 지체의 상해, 육체와 정신의 고문, 심리적 탄압과 같이 인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감금, 유형, 노예화, 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매매, 또는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단순한 수익의 도구로 취급되는 노동의 악조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 등, 또 이와 비슷한 다른 모든 행위는 실로 파렴치한 노릇이다. 그것은 인간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

반대자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

28. 사회, 정치, 종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호의와 친절을 가지고 그들의 사고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그들과의 대화는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랑과 호의가 진리와 선에 대하여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재촉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러나 오와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 오류는 항상 배격해야 하지만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비록 종교 문제에 있어서 아주 틀린 생각이나 불충분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다.(주10:"지상의 평화":AAS55(1963)p.299-300) 하느님 홀로 심판자이시며 그분 홀로 인간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의 마음속 죄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하느님께서 금하신다.(주11:루가6,37-38;마태7,1-2;로마2,1-11;14,10;14,10-12)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모욕까지 용서하기를 요구한다.(주12:마태5,43-47) 또 신약의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완수에게까지 확대시키셨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태5,43-44)

만인의 본질적 평등과 사회 정의

29. 만인이 이성을 갖춘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어 같은 본성과 같은 원천을 가졌으며 그리스도께 구원되고 같은 목적에로 함께 불리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평등은 더욱 명백히 긍정되어야 한다. 물론 육체적 능력이 다르고 지성적 내지 윤리적 역량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기본권에 관한 모든 차별 대우는, 그것이 사회적 차별이든지 문화적 차별이든지, 혹은 성별, 인종, 피부생, 지위, 언어, 종교 등에 기인한 차별이든지, 그것은 모두 다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한다. 이같은 인간의 기본권이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이 남아 있다는 사실음 애우 슬픈 일이다. 예를 들면 남편 선택의 자유나 신분 선택의 자유, 남성과 동일한 교육이나 혜택을 누릴 권리 같은 것을 여성에게 인정치 않는 경우가 그렇다.

또한 인간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존엄성은 보다 인간답고 공평한 생활 조건을 요구한다. 하나의 인간 가족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면 물의의 원인이 되고 사회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 사회적 내지 국제적 평화에 배치될 것이다.

사적이거나 공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인간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봉사하며 온갖 사회적 내지 정치적 노예화를 거슬러 투쟁하고 어떠한 정치 체제하에서나 인간의 기본구너을 보장하도록 진력해야 한다. 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제조들은 점차로 최고의 현실인 정신 세계에 적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극복되어야 할 개인주의적 윤리관

30. 사물의 급격한 변화는 어느 누구도 사태의 진전에 무관심하거나 비겁한 나머지 순전한 개인주의적 윤리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각 사람이 자신의 능

력과 타인의 필요를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적 혹은 공적 제도들을 촉진하고 원조하여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할 때 정의와 사랑의 의무는 더욱더 잘 수행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넓고 후한 의견을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조금도 돌보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법규와 규정을 전혀 무시한다. 또한 갖가지 사기와 기만으로 정당한 세금이나 그 밖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염치없이 회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건 위생법이나 운전 법규같은 사회 생활의 규범을 경시하며 이같은 무관심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적 연대책임을 현대인의 주요한 의무의 하나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성한 일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바란다. 세계가 하나로 결합되며 될수록 인간의 의무도 더욱 명백히 개별적 집단의 범위를 벗어나 점차로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어 간다. 그러나 이것은 각 개인과 그 소속 단체들이 윤리적 내지 사회적 미덕을 스스로 닦으며 그 미덕을 사회 안에서 확대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참된 새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책임과 사회 참여

31. 각 사람이 자신과 그 소속 집단에 대한 양심의 의무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 인류에게 주어진 무수한 수단을 이용하여 열심히 각자의 문화적 교양을 높여야 한다. 특히 각 계층의 청소년 교육에 힘씀으로서 유능할 뿐 아니라 현대가 요망하는 대로 위대한 인격을 갖춘 남녀가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자의 존엄성을 자각하며 하느님과 이웃에게 대한 봉사로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생활 조건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이같은 책임감에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의 자유는 지나치게 안일한 생활을 계속하며 자신을 빛나는 고립속에 가두어 버릴 때 그 가치를 상실하듯이 인간의 자유는 또한 극도의 빈곤에 빠질 때에도 위축되어 버린다. 그와 반대로 피치 못할 사회 생활의 속박과 인간의 연대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구를 책임지고 수락하며 인간 공동체에 헌신 봉사할 때에 인간의 자유는 더욱 강해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 공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참된 자유 분위기속에서 공공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들의 시책은 찬양할 만하다. 그렇지만 각 국민의 실정과 공권의 필요한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들의 활동에 모든 국민이 의욕적으로 참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들이 사람들을 끌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에 봉사하도록 움직일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의 의의와 희망의 근거를 다음 세대에 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손에 인류의 미래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 되신 "말씀"과 인류 공동체

32.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 떨어져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사회 단체를 형성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성화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도 아무런 상호 유대도 없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한 백성을 이루어 상호 유대도 없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한 백성을 이루어 진리를 따라 당신을 인식하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신 것이다"(주13:교회헌장 제2장n.9::AAS57(1965)p.12-13)따라서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시초부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고 한 공동체의 지체로 뽑으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뽑으신 사람들에게 당신 계획을 알리시며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셨고(출애3,7-12) 이 백성과 더불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다.(주14:출애24,1-8)

이같은 공동체적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업행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엇다. 혈육을 취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공동 운명에 참여하시고자 하셨다.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시고 자캐오의 집을 찾아 주시고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다. 아주 평범한 사회현실을 상기시키시고 일상 생활의 용어와 실례를 들어 성부의 사랑과 인간이 불린 고상한 목적을 계시하셨다. 인간 관계, 특히 사회 생활의 바탕이 되는 가정 관계를 성화하시고 당신 조국의 법률을 자원으로 준수하셨다. 당신 시대와 당신 지방의 노동자 생활을 자원으로 택하셨다.

설교하실 때에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서로 형제처럼 지내라고 똑똑히 명하셨다. 기도하실 때에도 당신의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빌어 주셨다. 더구나 만민의 구세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시어 죽기까지 하셨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15,13)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들에게 명하시어 이류로 하여금 하느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사랑이 모든 법의 완성임을 알게 하셨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 사이에 새로운 형제적 일치를 성령의 은사로써 제정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이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지체를

이루고 각기 받는 바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 사로 봉사하는 것이다.

이 연대성은 완성되는 그 날까지 항상 더욱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완성되는 그 날이 오면 은총으로 구원된 사람들이 하느님과 형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가족으로서 완전한 영광을 하느님께 드릴 것이다.

제 3 장

우주 안의 인간 활동

문 제 점

33. 인간은 자기 노력과 재능을 다하여 자신의 생활을 발전시키려고 언제나 분투해 왔다현대 와서 인간은 특히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그 지배권을 거의 자연계 전체에 확장했고 또 계속 확장하고 잇다. 또 무엇보다도 국가들 사이의 여러 가지 교류 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인류 가족은 점차 전세계의 한 공동체임을 자각하며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인간은 한때 초인간적인 힘에 의존하던 많은 혜택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전인류에게 펴져 가는 이 거대한 노력 앞에서 인간들에게는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인간 활동의 의 의의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개인적 내지 사회적 노력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보존하며 거기서 종교적 내지 윤리적 분양의 여러 원리를 찾아내고 있으므로, 개개의 문제에 언제나 즉각적인 해답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인류가 걷기 시작한 행로를 비추어 주기 위해서 계시의 빛을 모든 사람의 경험에 결부시키고자 한다.

인간 활동의 가치

34. 인간이 세기를 통하여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력해온 이 거대한 노력은 그 자체가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한다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명백한 일이다. 과연,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의롭고 성스럽게 우주를 통치하고(주1:창세1,26-27;9,3;지서9,3) 하느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인식하며 자신과 전 우주를 하느님께 바쳐 드리라는 명을 받았다. 따

라서 인간은 만물을 인간에게 복종시킴으로써 하느님의 이름이 전 우주에 빛나도록 해야 한다.(주2:시편8,7과10)

이 명령은 또한 이상 노동에도 적용된다. 자기와 가족들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노동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적절히 봉사하는 남녀는 자신의 노동으로 창조주의 사업을 계속하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에 개인의 노력으로 이바지한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주3:"지상의 평화"AAS55(1963)p.297.)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인간이 스스로의 재능과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을 하느님의 권능에 배치된다거나 이성을 가진 피조물을 창조주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인류의 승리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요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계획의 결실이라고 확신한다.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책임도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주 건설에서 인간들을 외면시키거나 동료들의 복지에 무관심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주4:"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부들의 메시지세계 모든 사람들에게,"1962년10"월AAS54(1962)p.823.)

인간 활동의 규범

35. 인간 활동은 인간에게서 나오듯 인간을 향하고 있다. 인간이 활동을 통하여 사물과 사회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 능력을 기르며 자기를 벗어나 자신을 초월한다. 이같은 성장은 바로 이해한다면 외적 재산의 축적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인간이냐에 있다.(주5:바오로6세"외교단 앞에서의 연설,"1965년1월7일:AAS57(1965)p.232.) 마찬가지로, 보다 나은 정의와 보다 넓은 형제애와 보다 인간다운 사회 관계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기술의 발전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인간 향상에 물질적 바탕은 마련할 수 있지만 그 힘만으로 인간 향상을 실현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활동의 규범은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과 그 뜻을 따라 인류의 진정한 복지에 부합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완전무결하게 추구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세 사물의 정당한 자율성

36. 그러나 많은 현대인은 인간 활동과 종교를 밀접하게 관련시킴으로써 인간과 사회와 학문의 자율서을 침해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하다.

만일 지상 사물들의 자율성이란 말로써 피조물과 인간사회가 고유의 법칙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인간이 그 것을 점차로 알아내고 이용하며 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면 이런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것은 현대인이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사실, 만물은 창조되었다는 조건 자체로써 고유의 안정과 진리와 선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유의 법칙과 질서를 진고 있으므로 인간은 그것을 존중해야 하고 각 학문과 기술의 고유한 방법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 분야의 탐군,ㄴ 그것이 참으로 과학적 방법을 따르고 윤리 규범을 따라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신앙에 대립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속 사물이나 신앙의 내용은 다 함께 하느님 안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겸허하고 항구하게 사물의 비밀을 탐색하는 사람은, 의식하지는 못해도, 몬말을 보존하고 만물의 존재를 규정하시는 하느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정당한 자율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대립과 논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과 학문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는 정신 태도는, 간혹 신자들 가운데에도 없지 않았지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주7:;몬시뇰 비오 빠스키니"갈릴레이의 갈리레오 생애와 저서."제2권 바티칸판 1963년 참조)

그러나 만일 "현세 사물의 자율성"이란 말로써 피조물들이 하느님께 의존하지 않는다거나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인간이 피조물을 멋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 하느님을 인정하는 사람치고 이런 견해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없이 피조물이란 허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어떤 종교이건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피조물들의 말 속에서 하느님의 계시와 말소리를 언제나 들어왔다. 더욱이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면 피조물 자체의 정체도 어두워지고 있다.

죄로 타락한 인간 활동

37. 인간의 진보는 인간 복지에 크게 이바지하지만 동시에 큰 유혹도 수반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인류 가족에게 가르쳐 주며 세기를 통한 경험도 역시 일치한다. 사실 가치 질서가 혼란해지고 선과 악이 뒤섞이게 되면 각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

하고 타인의 이익은 생각지 않는다.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이미 참된 형제애의 광장이 되지 못하고 증대된 인간의 힘은 인류 자체의 멸망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인류 역사는 암흑의 세력에 저항하는 인간의 악전고투로 엮어져 잇으며 이 투쟁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말씀대로(주8:마태24,13;13,24-30과36-43)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전투에 말려든 인간은 선에 충실하기 위해서 끝없이 싸워야 하고 하느님의 도우심과 비상한 노력 없이는 자신의통일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느님의 계획을 믿으며 인간의 진보가 인간의 참된 행복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로마12,2) 즉 하느님과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간 활동을 죄의 연장으로 변질케 하는 허영과 아의에 가득 찬 정신을 따르지 말라 하신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교만과 무질서한 자애심 때문에 매일같이 탈선의 위험을 겪고 있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써 정화하고 목적 달성에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고백한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이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하느님의 손에서 흘러 나오는 것으로 보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피조물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우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청빈과 자유의 정신으로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그 혜택을 누리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주9:2고린6,10) 진정한 세계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1고린3,22-23)

빠스카의 신비 안에서 완성된 인간 활동

38. 만물을 창조하신 하늼의 말씀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인간 세계에 거처하시며(주10:요한1,3과14)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세계 역사를 당신 안에 받아들이시어 새롭게 하셨다.(주11:에페1,10) 그 분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4,8) 고 계시하시며 동시에 인간 완성과 따라서 세계 개혁의 근본법칙은 사랑의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따라서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사랑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과 전인류의 형제애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 동시에 이 사랑은 중대한 일에 있어서만이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 동시에 이 사랑은 중대한 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먼저 일상 생활 환경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충고하신다. 또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며(주12:요한3,16;로마5,8) 당신 표양으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깨에 육신과 세속이 지워 주는 십자가도 져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당신 부활로써 주님이 되시어 천상천하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주13:사도2,36;마태28,18) 당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들 마음속이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며 미래 세계에 대한 희망을 일으키실 뿐 아니라 또한 그로써 스스로의 생활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고 현세적 모든 것을 이 목적에 종속시키려는 인류 가족의 간절한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정화하시고 북돋아 주신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천상 생활에 대한 희망을 공적으로 증거하며 인류 가족 안에 이 희망을 생생하게 보존하도록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들을 위한 현세적 봉사에 헌신하며 이 봉사로 천국의 재료를 마련하도록 부르신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시어, 자애심을 버리고 모든 지상 자력을 인간 생활에 집결시킴으로써 인류 자체가 하느님 뜻에 드는 제물이 될(주14:로마15,16) 미래를 향하여 성장케 하신다.

주께서 믿는 이들을 위하여 이 희망의 보증과 노자로 신앙의 성사를 남겨 주셨다. 이 성사에 있어서 인간의 손으로 가꾸어진 자연의 구성 요소들이 영광스러운 성체와 성혈로 변한다. 이 성사는 또한 형제적 친교의 만찬이요 천상잔치의 예행인 것이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39. 우리는 땅과 인류의 완성시기를 알지 못한다.(주15:사도1,7) 우주 변혁의 방법도 모른다. 죄로 이지러진 현세의 모습은 분명 지나간다.(주16:1고린7,31;성 이레네오,"반이단론"5권36:PGⅦ,1221.)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처소와 새로운 땅을 마련하실 것이며, 거기서는 정의가 지배할 것이고(주17:1고린5,2;2베드3,13) 그 행복은 인간들 마음속에서 치소소는 평화의 온갖 소망을 충족시키고 넘치리라는(주18:1고린2,9;묵시21,4-5)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다. 그때에 죽음은 패배하고 하느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며 약하고 썩을 것으로 심겨졌던 것이 썩지 않는 힘을 입을 것이다.(주19:1고린15,42와53) 사랑과 사랑의 업적은 남을 것이며,(주20:1고린13,8;3,14) 하느님이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피조물 전체가 허양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것이다.(주21:로마8,19-21)

인간이 온 세상을 다 얻을지라도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주22:루가9,25) 경고를 우리는 듣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이 땅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고 오히려 그런 의욕을 자극시켜야 할 것이다. 이 지상에서 이미 새로운 세대를 어느 정도 암시해 주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세적 진보를 그리스도 왕국의 발전과 분명히 구별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주23:비오10세회칙"Quadragesimo Annl"AAS23(1931)p.207.)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적 친교와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성과 노력으로 얻어진 훌륭한 결실을 전부 다 주님의 성령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널리 지상에 전파한 후에, 모든 때를 씻어 버리고 광채 찬란하게 변모된 그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성부께 "보편되고 영원한 나라를"돌려 드릴 때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주24:그리스도왕 주일 감사송)일 것이다. 이 나라는 이미 현세에 신비롭게 현존하고 있으나 주님이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다.

제 4 장

현대 세계 안의 교회의 사명

40.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공동체, 인간 활동의 깊은 뜻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교회와 세계의 상호 관계의 기초를 이루며 상호 대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주1: 바오로6세 회칙"Ecclesiam suam,"Ⅲ:AAS56(1964)p.637-659) 그러므로 여기서는, 공의회가 교회의 신비에 대하여 이미 발표한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 동일한 교회를 이 세계에 존재하고 세계와 함께 살며 활동한다는 점에서 고찰하려는 것이다.

교회는 영원하신 성부의 사랑에서 좇아내고(주2:디도3,4"Philanthropia"참조) 구세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간 속에 세워졌으며 성령 안에서 모여,(주3:에페1,3;5,-6;13-14;23) 구원과 종말을 목적으로 가진다. 이 목적은 후세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이 지상에 현존하고 있으며 현세 국가의 멤버들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의 가족을 형성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증가시키도록 불린 것이다. 천상 보화를 위하여 서로 결합되고 천상보화로 부요하게 된 이 가족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회로서 이 세계 안에 설립되고 조직되었으며"(주4:교회헌장제1장n.8:AAS57(1965)p.12) "볼 수 있는 사회적 일치의 수단도 갖추고 있다."(주5:상동제2장n.9:AAS57(1965)p.14;n.8:AAS56p.11) 이렇게 교회는 동

시에 "볼 수 있는 단체요 영적 공동체로서"(주6:상동n.8:AASp.11) 전인류와 함께 길을 걸으며 세계와 같은 운명을 겪고 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되고 하느님의 가족으로 변형되어야 할 인류 사회의 누룩이나 영혼과 같은(주7:상동 제4장 n.38:AASp.43과 주120) 존재이기도 하다.

지상 국가와 천상 국가의 이같은 융합은 신앙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고 인류 역사의 신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죄로 혼란을 면치 못하겠기 때문이다. 교회는 구원을 고유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인간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생명이 반사하는 광명을 전세계에 비추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고쳐 주며 향상시키고, 인류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며, 인간의 일상 활동에 보다 깊은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에 빛을 던져 준다. 이렇게 교회는 각 지체와 그 전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 가족과 그 역사를 날로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뿐 아니라, 이같은 사명을 다히 위하여 다른 그리스도 교회나 교회 공동체들이 협동하여 이바지하였고 아직도 이바지하고 있음을 가톨릭 교회는 기꺼이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동시에 교회는 복음의 길을 닦기 위하여 세계로부터 개인이나 인간 사회의 재능과 노력에 의한 큰 도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교회와 세계에 어느정도 공통된 영역에서 이같은 상호 교류와 언주를 올바로 촉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일반 원칙을 이제 논하려 한다.

교회가 개인에게 주고자 하는 원조

41. 현대인은 자신의 인격을 보다 완전히 발전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보다 많이 발견하여 주장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최후 목적인 하느님의 신비를 밝혀 주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므로 교회는 동시에 인간 존재의 의의, 즉 인간에 대한 깊은 진리를 인간에게 밝혀 준다.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느님만이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소망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고 지상 양식으로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교회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인간은 끊임없이 성령의 권고를 듣고 있으므로 결코 종교 문제에 전혀 무관심할 수 없음을 교회는 알고 있다. 이 사실은 세기를 통한 지난날의 경험뿐 아니라 오늘의 여러 가지 증거로도 입증되는 바이다. 인간은 언제나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자기 생명과 자기 활동과 자기 죽음의 뜻을 알려고 갈망하겠기 때문이다. 교회의 현존 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인간에게 상기시켜 준다. 하느님이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죄에서 구해 주셨으므로 그분만이 이런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주실 수 있다. 하

느님은 인간이 되신 당신 아들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완전한 해답을 주셨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신앙에서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온갖 변덕스러운 견해에서 보호할 수 있다. 예컨대 인간의 육체를 지나치게 업신여기는가 하면 터무니없이 찬양하는 견해도 있다. 어떠한 인간의 법률도 교회에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느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알리고 선언하며 최종적으로는 죄에 기인하는 온갖 노예 상태를 배격한다.(주8:로마8,14-17) 복음은 또한 양심의 존엄성과 그 자유결정을 거룩히 존중하고 인간의 모든 재능을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용하라고 끊임없이 권고함 모든 사람에게 박애정신을 권장한다.(주9:마태22,39)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적 구원 계획의 근본 법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느님이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시고 또한 인류사와 구세사의 주인이시면서도 당신이 정하신 이 질서에 있어서는 피조물의 정당한 자율성과 특히 인간의 자율성만은 박탈하지 않으셨을뿐더러 오히려 그 존엄성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견고케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맡겨진 복음에서 힘을 얻어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고 이 권리르도처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현대의 강력한 움직임을 그대로 인정하며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런 운동은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하겠고, 온갖 그릇된 자율관에서 방위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신법의 온갖 규범에서 해방되어야만 비로소 인간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다는 생각에 유혹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구원되기는커녕 오히려 소멸되고 말 것이다.

교회가 인류 사회에 주고자 하는 원조

42. 인류 가족의 일치는 그리스도 안에 기반을 둔 하느님의 자녀들의 가족적 일치로써(주10:교회헌장제2장n.9:AAS57(1965)p.12-14) 더욱 튼튼해지고 완성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고유의 사명은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정해 주신 목적은 종교적 질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종교적 사명에서 신법을 따라 건설하고 견고케 해야 할 인간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무와 빛과 힘이 나오는 것이다. 때와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선 사업이나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 특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교회 자체가 일으킬 수 있고 또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오늘의 강력한 사회 운동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특히 일치의 진보, 건전한 사회화, 사회적 내지 경제적 연대의식의 진전 등을 인정하는 바이다. 일치의 촉진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일치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의 성사와 같은 것으로서,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인류 일치의 표지요 연장"(주12:교회헌장 제1장n.1:AAS57(1965)p.5)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는 사회의 진실한 외적 일치가 정신과 마음의 일치에 기인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 준다. 즉 성령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주는 신앙과 사랑에서 사회적 일치가 기인됨을 알려 준다. 교회가 현대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실생활에 실천되고 있는 이 신앙과 사랑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순 인간적 방법으로 외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그 사명과 본질에 따라 인류 문화의 어떤 특수 형태나 어떤 특정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바로 이 보편성 때문에 여러 인간 공동체와 국가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의 사명 달성을 위한 완전한 자유를 실제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그들의 유대를 맺어주는 끈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그 자녀들과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들로서의 가족적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들 사이의 온갖 불화를 극복하고 정당한 인간 단체들을 내적으로 강화하도록 충고한다.

그러므로 인류가 이미 만들었고 또 아직도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각양각색의 제도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참된 것, 좋은 것, 옳은 것은 무엇이나 다 큰 존경심을 가지고 공의회가 주목하는 바이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영역에 속하고, 교회의 사명과 합치되는 한, 교회는 이같은 온갖 제도들을 도와 주고 촉진하기 바란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모든 정치 체제 밑에서 스스로 자유로이 발전하는 것 외에 더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11:비오12세"역사와 예술 전문가 앞에서의 연설,"1956년3월9일:AAS48(1956)p.212, "교회를 세우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화에 관한 계명을 교회에 주지 않으시고 문화 형성의 목적도 주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목적은 엄밀히 종교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도록 교회는 하느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교회는 엄밀히 종교적이며 초자연적인 이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다. 교회의 전 활동의 의의는 교회 법전의 마지막 조항까지 이상 목적에 직접 간접으로 협력하는 그것뿐이다."

신자들을 통해서 인간 활동에 기여하려는 교회의 도움

43. 공의회는 신자들이 천상국가와 지상국가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현세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를 가지지 못했고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음을 알고(주13:히브13,14) 있지만 그 때문에 자기의 현세 임무를 등한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각자의 사명대로 지상임무를 이행하도록(주14:1데살3,6-13;에페4,28) 그들에게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는 정반대로, 종교 생활이란 단지 경신 행위와 약간의 윤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분이라 생각하며 현세 활동은 종교 생활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현세 활동에 온전히 몰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자만 못지 않게 잘못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과 그들의 일상 생활 사이의 모순은 현대의 중대한 오류 중의 하나라 하겠다. 구약에 있어서 이미 이런 스캔들을 예언자들이 강력히 규탄하였고(주15:이사58,1-12) 더욱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한 벌로 경고하셨다.(주16:마태23,3-23;마르7,10-13) 그러므로 한편의 직업적 내지 사회적 활동과 다른 종교 생활을 부당하게 서로 대립시켜서는 안된다. 자기의 현세적 임무를 등한시하는 그리스도 신자는 이웃과 더욱이 하느님께 대한 자기 임무를 등한시하게 되므로 자기의 영원한 구원도 위태롭게 만든다. 모름지기 그리스도 신자들은 목수일을 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인간적, 가정적, 직업적, 학문적 내지 기술적 노력을 종교적 가치와 결부시켜 하나의 생생한 종합을 이룸으로써 자기의 온갖 현세 활동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종교적 가치의 고상한 질서 밑에서 모든 것은 함께 하느님의 영광을 지향하게 된다.

세속적 임무와 노력은 비록 독점적은 아닐지라도 평신도들의 영역이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개인으로나 단체로 시민으로서 행동할 때에 각 분야에 고유한 법칙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기꺼이 협력해야 한다. 신앙의 요구를 깨닫고 신앙에서 힘을 얻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새로운 일을 창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세적 시민생활 속에 신법을 새겨 주는 일은 올바로 형성된 양심을 가진 신자들의 책임이다. 신도들이 영적 빛과 힘을 사제들에게 기대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목자들이 모든 일에 정통하여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아무리 중대한 문제가 생기든지 언제나 즉석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줄 수 있다거나 또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오히려 신도들은 그리스도교적 지혜의 빛을 받아 교권이 가르치는 바를 깊이 염두에 새겨 두고(주17:“어머니와 교사”Ⅳ:AAS53(1961)p.456-457; Ⅰ:AASp.407,410-411) 그 고유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겠다.

사물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사고 방식대로 어떤 환경에 처해서 일정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경우가 가끔 있을 것이다. 다른 신도들은 그들대로 역시 진지한 태도로 임하면서도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또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 많은 이들은 상대방의 본의를 떠나서까지 자기의 해결책만이 복음의 메시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도 교회의 권위를 빙자하여 배타적으로 자기 주장을 고집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언제나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선을 첫째 관심사로 삼아야 하겠다.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행동적 역할을 맡은 평신도들은 셋상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침투시켜야 할 뿐 아니라, 인간 사회 한가운데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불린 것이다.

하느님의 교회를 지도할 책임이 맡겨진 주교들은 자기 사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설교함으로써 신도들의 현세적 모든 활동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 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목자들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배려로서(주18:교회헌장제3장 n.28:AAS57(1965)p.35)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그로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힘과 진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그 현존 자체만으로도 현대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의 마르지 않는 원천임을, 사목자들은 수도자와 신도들과 함께 생활과 말로써 증명해야 한다. 부단한 부단한 연구로 현대 세계의 어떤 견해의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공의회의 말씀을 마음에 개겨 두어야 한다. “인류가 날로 더욱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하나로 뭉치고 있는 오늘, 더욱기 사제들은 주교와 교황의 지도하에 서로 힘을 같이하여 일하며 전인류를 하느님의 가족적 일치에로 이끌기 위하여 온갖 분열의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주19:상동 n.28:AASp.35-36)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주의 충실한 정배로 머물렀고 또한 끊임없이 세상 안에서 구원의 표지 구실을 하였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그 멤버들 가운데는(주20:성 암브로시오, “동정에 관하여,”8장 n.48:PL16,278) 천주 성령께 불충실한 사람도 없지 않았음을 모른 바이 아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인간적 나약성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결함에 대한 역사의 판단이 어떻든간에, 우리는 이런 잘못을 자인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함으로써 복음 선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다. 교회는 또한 세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기를 통한 경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인지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모이신 교회는 "교회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표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정화와 쇄신을 끊임없이 권고하는 바이다."(주21:교회헌장 제2장 n.15:AAS57(1965)p.20)

현대 세계로부터 교회가 받는 도움

44. 세계가 교회를 역사적 사회현실로 보고 그 누룩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듯이 교회도 인류 역사와 그 발전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 않는다.

지난 여러 세기의 경험, 학문의 진보, 여러 문화 형태속에 숨어 있는 보화 등은 인간 자신의 본성을 더욱 풍부히 밝혀 주고 진리를 찾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며 교회에도 유익한 것이다. 교회는 그 역사의 시초부터 여러 민조들의 언어와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즈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또한 철학자들의 예지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써왔다. 이것은 결국 가능한 한, 복음을 만민에게 이해시키고 지성인들의 요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계시된 말씀을 이같이 환경에 적응시켜 설교한다는 것은 언제나 복음 선포의 원칙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로써 모든 나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나라에 알맞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여러 민족들의 문화와 교회와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주22:상동:AAS57p.17) 교회는 이런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물이 급격히 변동하고 사고 방식이 실로 십인십색(十人十色)인 현대에 있어서는, 특히 신자 비신자들 막론하고 세상에 살며 여러 가지 제도와 학문에 정통하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현대 세계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분별하며 해석하고 복음의 빛으로 판단함으로써 계시된 진리가 항상 더욱 깊이 알려지고 더 잘 이해되고 더욱 적절히 표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의무이며 특히 사목자들과 신학자들의 의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으 일치의 표현으로 가견적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적 사회 생활의 발전으로 교회도 역시 부요해질 수 있고 또 사실 부요해지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교회 구조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잘 표현하고 현대에 더 잘 적응시킨다는 뜻이다. 교회는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나 그 자녀들 개인을 위해서나 모든 계층과 조건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감사로이 느낀다. 가정, 문화, 경제, 사회, 정치 각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간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계획을 따라 외적 요소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반대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의 반대에서도 많은 이익을 얻었고 또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주23:유스티노, “트리폰과의 대화”,110장:PG6,719(Otto판)1897,p.391-393,“그러나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부과되면 될 수록 그만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신자가 되고 열심해진다.;떼르뚤리아노의 “호교론”,제1장13“그리스도의 몸”라티언판 I ,p.171, “너희가 우리를 잡아 없앨 때마다 우리는 더욱 많아진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피는 씨가 된다.”:교회헌장 제2장n.9:AAS57(1965)p.14)

시작이요 끝이신 그리스도

45. 교회가 스스로 세상을 도와 주고 세상의 많은 도움을 받음으로써 목적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인류의 구원이 성취되기 위한다는 한 가지뿐이다. 교회가 지상을 여행하는 동안, 인류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 전부가, 교회는 인간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보여 주며 실천하는 “구원의 보편적 성사”

(주24:교회헌장제2장n.15:AAS57(1965)p.20)라는 거기서 흘러 나온다.

만물의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슴이 혈육을 취하신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어 만인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요 역사와 문명이 열망하는 초점이며 인류의 중심이시고, 모든 마음의 기쁨이며 그 욕망의 충족이시다.(주25:바오로6세1965년2월3일의 연설) 성부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들어 높이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히시고 산 이와 죽은 이의 심판관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로 모여 인류 역사의 종말을 향해 여행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에페1,10) 그분의 사랑의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주 친히 말씀하신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묵시22,12-13)

제 2 부

몇 가지 긴급 과제

서 론

46. 공의회는 먼저 인간(인격)의 존엄성이 어더하며 또 인간은 우주 안에서 개인적 내지 사회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리였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제는 복음의 빛과 인간이 얻은 경험의 빛을 받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의 몇 가지 긴급 과제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모으고자 한다.

오늘날 일반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많은 과제 중에서 특히 혼인과 가정,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생활, 민족간의 가족적 유대와 평화를 들 수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원리와 빛을 명백히 보여 줌으로써 이 복잡다단한 문제들의 해결을 찾는 데에 신자들을 지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발겨 주고자 하는 바이다.

제 1 장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현대 세계의 혼인과 가정

47. 개인의 구원과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구원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 오늘 이 사랑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부부와 양친을 도와 그 숭고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부터 풍부히 제공된느 여러 가지 보조수단에 대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 공동체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기버할 뿐 아니라 거기서 더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촉진하기로 노력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정)의 존엄성이 어디서나 꼭같은 빛을 발하지는 못한다. 다처주의, 이혼의 유행, 소위 자유 연애, 그 밖의 여러 가지 탈선의 풍조로 이 제도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부부애는 이기주의, 향락주의, 부당한 피임수단 등으로 가끔 속화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 경제, 사회 심리, 정치 등의 생활 조거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혼란도 적지 않다. 마침내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팽창에서 생기는 문제

들이 걱정스럽다. 인간의 양심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심각한 변혁 자체가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곤란을 무릅쓰고 가끔 여러 모양으로 이 제도의 참된 성격을 표현해 준다는 데에서 혼인 내지 가정 제도의 가치와 힘이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밝힘으로써 결혼 생활의 본연의 존엄성과 그 탁월하고 성스러운 가치를 수호하며 촉진하려고 애쓰는 신자들과 모든 사람들 비추어 주며 격려하고자 한다.

48. 부부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조물주 친히 제정하셨고 조물주 친히 그 법칙을 주셨으며 결혼 당사자도 철회치 못할 인격적 동의의 계약으로 성립된다. 이 같인 배우자가 서로 자신을 주고 받는 인간 행위로, 하느님의 제정하신 견고한 제도가 사회에 나타난다. 부부와 자녀들과 사회의 행복을 목적하는 이 성스러운 인연이 인간 임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 혼인 제도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주1:성 아우구스티노,"혼인의 행복":PL40,375-376;성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 부록,문제49,3의1:"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Denz-Schon1327;비오11세의 회칙"정결한 동정생활"AASp.547-546;Denz-Schon3703-3714) 이 모든 가치와 목적은 인류 존속, 가정 구성원의 인격 향상과 영원한 운명, 가정 자체와 온 인류 사회의 존엄성과 영속성, 평화화 행복 등에 극히 중요한 것이다. 혼인 제도와 부부애는 본연의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서 부부애는 절정에 달하고 흡사 월계관을 받아 쓰는 셈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혼인 계약으로써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마태19,6) 인격과 행위의 깊은 결합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며 동시에 이로써 자신들의 결합과 의의를 체험하며 날로 더욱 깊게 한다. 이 깊은 일치는 인격과 인격의 상호교환이므로, 자녀의 행복이 요구하듯이,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그 일치의 불가해소성을 강요한다.

(주2:"정결한 동정생활":AASp.546-547;Denz-Schon3703-3714)

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천상 원천에서 솟아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모델 삼아 구성된 이 다각적 사랑에 풍부한 당신 축복을 내리셨다. 일찍이 히느님께서 사랑과 충실의 계약으로써 당신 백성을 도와 주셨듯이,(주3:호세2;예레3,6-13;에제16과23;이사54.) 지금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교회의 정배께서(주4:마태9,15;마르2,19-20;루가2,34-35;요한3,29;2고린11,2;에페5,27;묵시19,7-8;21,2와9) 혼인성사로써 신자 부부를 도우러 오신다. 그들과 함께 계시며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주5:에페5,25) 것처럼 부부도 역시 서로의 애정과 변치 않능 충실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 주신다. 진정한 부부애는 하느님의 사랑에 흡수되어 그리스도의 구원능력

과 교회의 구원활동으로 지배되고 풍요해진다. 이리하여 부부는 효과적으로 하느님께로 인도되고 부모의 숭고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도움과 힘을 얻을 것이다.(주6:교회헌장:AAS57(1965)p.15-16;40-41;47.) 그러므로 신자 부부는 그 신분의 의무와 존엄성을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 견고케 되는 것이니 말하자면 축성되는 것이다.(주7:"정결한 동정생활":AAS22p.583.) 이 성사의 힘으로 신자 부부는 혼인과 가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전 생애를 신망애 삼덕으로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날로 더욱 자기 완성과 상호 성화에 전진함으로써 공동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 자신이 솔선 수범하고 가정적 기도생활을 실천한다면 자녀들과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적 완성과 구원과 성화의 길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 또한 부성과 모성의 직무와 품위를 갖춘 부부는 자녀 교육의 의무, 특히 자녀들의 종교 교육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다. 교육의 의무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가정의 산 멤버로써 그들 나름으로 부모들 성화에 이바지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효시과 신뢰로써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할 것이며 부모를 역경과 노후 고독 중에 자녀답게 봉양해 드릴 것이다. 홀몸의 신분을 결혼 성소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주8:1디모5,3)

가정들은 서로 영적 보호라를 후히 나눔이 마땅한다. 그리스도교적 가정은,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으로 맺어진 계약을 표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혼인성사로 이루어졌으므로,(주9:에페5,32) 부부애와 풍부한 자녀 번성과 단합과 충실로써뿐 아니라 가족 전원의 사랑과 협력으로써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세상에 현존시켜 드리며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부부애

49. 하느님의 말씀은 약혼자와 기혼 부부를 향하여, 약혼기를 순결한 사랑으로 성숙시키고, 결혼 생활을 분열없는 사랑으로 수호하라고 거듭 권고하신다.(주10:창세2,22-24;잠언5,15-20;31,10-31;도비8,4-8;아가1,2-3;1,16-5,1;7,8-14;1고린7,3-6;에페5,25-33) 많은 현대인들도 민족과 시대의 관습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된 부부의 참된 사랑을 높이 평가한다. 이 사랑은 감정을 동반하는 의지의 작용으로 인격에서 인격에게로 향하는 것이므로 가장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인격 전체의 행복을 감싸준다. 따라서 이 사랑은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표현에 특수한 품위를 부여하고 또한 이 표현들을 부부다운 우정의 특수한 요소와 표시로 삼아 값지게 만든다. 주께서는 이 사랑을 당신 은총

과 특별한 은혜로 고쳐 주시고 완성하시고 높여 주셨다. 이런 사랑은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를 함께 결합시키며 부부로 하여금 자신을 서로 자유로이 주고 받는 것을 정서와 표현으로 증명하게 하며 그들의 생활 전체를 감싸 준다.(주11:"정결한 동정생활":AAS22(1930)p.547과548:Denz-Schon3707.) 나아가서 이 사랑은 그 너그러운 실천을 통하여 보다 완전해지고 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은 이기적으로 추구하며 쉬이 꺼져 버리는 에로틱한 애정에는 비길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이 사랑은 혼인의 고유한 행위로써만 독특하게 표현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친밀하게 깨끗이 결합되는 행위는 정당하고 품위있는 행위이다. 진정 인간답게 행해진다면 자신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을 뜻하며 그것을 도와 줌으로써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를 풍요하게 만든다. 서로의 신의로 보장되고, 특히 그리스도의 성사로 성스럽게 된 이 사랑은, 역경과 순경에 몸과 마음이 갈릴 수 없도록 충실하며 온갖 간통이나 이혼에서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서로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평등하게 인정해야 할 인격저 존엄성은 주께서 확인하신 혼인의 단일성을 밝혀 준다. 이같은 그리스도교적 사며의 의무를 항구히 수행하려면 비상한 덕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부는 거룩한 생활을 위한 은총의 힘을 얻어 강한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과 희생의 정신을 항구히 배양하며 또한 기도로써 간구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들이 부부애의 충실과 조화를 훌륭하게 증명하고 자녀 교육에 헌신하며 혼인과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쇄신에 협력한다면, 진정한 부부애는 보다 높이 평가될 것이며 그에 대한 건전한 세로도 형성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정결을 닦고 적당한 시기에 정당한 약혼기를 거쳐 혼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애의 존엄성과 그 직무와 행위에 대하여 특히 가정 품 속에서 적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혼인의 열매

50. 혼인과 부부애는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과연 자녀들은 혼인의 가장 뛰어나는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한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창세2,18)하시고,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마태19,4)하느님께서 친히 당신 창조사업에 인간을 특별히 참여시키고자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창세1,28)하시며 남녀를 축복하시었다. 그러므로, 참된 부부애의 실천과 그로써 형성되는 가정 생활 전체는, 혼인과 다른 목적들을 경시함이 없이, 부부로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가족을 날로 자라게 하시며 풍요케 하시는 창조주와 구세

주의 사랑과 협력하기 위하여 용감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을 부부의 고유한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 부부는 이 의무 수행으로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사랑에 협력하며 말하자면 그 사랑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 신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하고 하느님께 대한 온순한 존경으로 함께 의논하며 함께 노력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복과 아울러 이미 태어난 자녀들과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행복을 고려하고 시대와 생활 상태의 물질적 내지 정신적 조건을 분별하며 가정과 현세 사회와 교회 자체의 각 공동체의 행복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판단은 부부가 최종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결정지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 부부는 스스로 행동함에 있어서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나 양심을 따라야 하고 양심은 또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또한 하느님의 법을 복음의 빛으로 권위있게 해석하는 교도권을 온순히 따라야 한다. 하느님의 법은 부부애의 뜻을 완전히 보여 주고 부부애를 보호하며 참으로 인간다운 완성에로 이끌어 준다. 이같이 신자 부부는 하느님 섭리에 신뢰하고 희생 정신을 배양하며(주12:1고린7,5) 인간으로서 또 신자로서 강한 책임감으로 인류 번식의 임무를 다할 때 조물주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덕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맡은 임무를 다하는 부부들 가운데서 특기해야 할 부부는 심사숙고한 끝에 의논이 맞아서 보다 많은 수의 자녀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넉넉히 교육시키는 부부이다.(주13:비오12세연설"Tra le visite,"1958년1월20일:AAS50(1958)p.91)

그러나 혼인은 자녀 생육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두 인격이 풀릴 수 없도록 맺어진 계약의 성격 자체와 자녀들의 행복은 다같이 부부 상호간의 사랑이 올바로 표현되고 자라며 성숙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가끔 간절히 바라는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은 전생애의 생활 양식과 생명의 일치로서 존속하며 그 가치와 불가해소성도 지속된다.

부부애와 생명의 존엄성

51. 부부 생활을 조화있게 영위하고자 하면서도 어떤 현대적 생활 조건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자녀 수를 증가시킬 수 없는 환경에 놓인 부부도 있다는 것을 공의회는 알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충실한 사랑의 실천도 생명의 완전한 일치도 유지하기 어렵다. 깊은 부부 생활이 중단되면 신의도 깨지기 쉽고 자녀의 행복도 위기에 봉착한다. 자녀 교육도, 자녀를 더 받아들이려는 용기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감히 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구나 살해까지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 전달에 관한 하느님의 법과 진정한 부부애를 보장하는 하느님의 법 사이에 참된 모순은 있을 수 없음을 일깨워 주는 바이다.

사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유지라는 숭고한 임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품위에 알맞는 방법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할 죄악이다. 인간의 성적 요소와 생식 기능은 하급동물에 비하여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것이다. 따라서 부부 생활에 고유한 행위가 진정 인간 품위에 알맞게 행해지면 엄숙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과 생명 전달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인간 행위의 윤리성은 의행의 순수성이나 동기 평가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행위의 본성에 바탕을 둔 객관적 기준으로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상호 헌신과 인류 번식의 온전한 의의를 참 사랑에 곁들여 보전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은 부부로서의 정결을 지키지 않고 서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원칙을 따라야 할 교회의 자녀들은 산아 조절에 있어서 하느님의 법을 해석하는 교권이 금하는 방법을(주14:“정결한 동정생활”:AAS22(1930)p.559-561:Denz-Schon3716-3718;비오12세의“산부인과 의사연합회에서의 연설,”1951년10월29일:AAS43(1951)p.835-854;바오로6세의“추기경단에게 하신 연설,”1964년6월23일:AAS56(1964)p.581-589.“더 깊은 다른 연구가 필요한 문제들은 교황의 명으로 인구,가정,출생률 등을 조사하는 위원회에 맡겼다. 위원회의 임무가 끝나면 교황이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교권이 판단하기까지는 공의회로서 구체적인 해결을 직접 내릴 생각은 없다.) 사용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생명과 생명 전달의 임무는 현세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영원한 목적과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겠다.

혼인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해야 할 만인의 의무

52. 가정은 보다 풍요한 인간성을 길러내는 학교와 같다. 그 생명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다정한 마음의 일치와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쉴 줄 모르는 협력이 요구된다. 자녀 교육에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간여가 대단히 유익하다. 그러나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돌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정당한 사회 진출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한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제나 수도 성소까지도 포함한 자신의 성소를 따라 신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행

복한 조건 밑에서 자신의 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룩할 때에 그들이 즐겨 들을 수 있도록 현명한 조언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은 부모와 보호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혼인이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강박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정은 여러 세대가 모여 보다 깊은 예지를 얻고 개인의 권리를 사회 생활의 다른 요청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곳이므로 가정은 사회의 기초를 이룬다. 그러므로 사회나 단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혼인과 가정의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국가 권력은 혼인과 가정의 본질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중도덕을 수호하고 가정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로 알아야 한다. 자녀를 낳고 가정의 품안에서 교육한다는 부모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가정의 행복을 잃은 어린이들은 적절한 입법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보호하고 넉넉히 도와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며(주15:에페5,16;골로4,5) 영원한 것을 변화무상한 유형한 것으로 분별하여, 자기 생활의 증언과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의 협력으로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열심히 향상시킬 것이다. 이같이 곤란을 극복하고 새 시대에 알맞는 편의와 필요한 도움을 가정에 제공할 수 잇으리라,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신자들의 그리스도교적 감각과 사람들의 도의심과 거룩한 학문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의 예지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자들, 특히 생물학, 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전문가들은 공동연구로써 산아 조절을 도와 주는 여러 가지 정당한 조건을 밝혀내기로 노력한다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행복과 또 양심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사제들은 가정 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배양하여, 기혼자들이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 전례 집행 기타 영적 도움등, 여러 가지 사목 수단으로 도와 주고 곤란 중에는 동정과 인내로써 격려하며 사랑으로써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러면 드디어 기쁘에 빛나는 가정이 형성되리라.

툭히 가정 운동회합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젊은이들, 기혼 부부들, 그 중에서도 신혼 부부들을 이론과 활동으로써 격려하며 그들을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사도적 활동 생활에 적합하게 육성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침내, 부부 자신도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인간의 참된 존엄성을 향유하면서 같은 애정과 같은 생각과 서로 성화시키는 노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주16:"Sacramentarium Gregorianmum"PL78,262)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신(주17:로마5,15와18;6,5-11;갈라2,20)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쁨과 희생이 수반되는 자기들의 사명

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충실한 사랑으로써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상에 계시된 (주18:에페5,25-27) 그 사랑의 신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제 2 장

문화 발전의 촉진

서 론

53.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만, 즉 자연의 선과 가치를 캐냄으로써만 참되고 완전한 인간성에 도달한다는 것이 인격의 특징이다. 인간 생활이 언급될 때마다 자연과 문화는 밀접히 연결된다.

"문화"란, 광의로는 인간이 정신과 육체를 연마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용하는 모든 사물을 말한다. 인간은 지식과 노동으로 전세계를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가정과 온갖 시민 사회에 있어서 관습과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 생활을 보다 인간답ㄷ게 만들며 마침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위대한 정신적 경험과 소망을 그 작품 속에 표현하고 전달하며 보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전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 문화는 필연적으로 역사적 내지 사회적 면을 보여주며, "문화"란 말은 사회학적 내지 민족학적 뜻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 결론된다. 이런 뜻에서 다수의 문화를 논하게 된다. 사실, 사물의 이용, 노동, 자기 표현ㅇ, 종교의 실천과 관습의 형성, 입법과 법 제도의 설립, 학문과 예술의 발전, 미의 발굴 등의 방법이 서로 다른 데에서 생활의 서로 다른 공동 조건과 생활 수단의 서로 다른 조직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이같이 물려 받은 제도에서 각 인간 공동체에 고유한 전통이 형성된다. 이렇게 또한 역사적 특정환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각 민족과 시대의 사람들이 속하게 되며 거기서 문화 발전에 필요한 여러 재화를 발견하게 된다.

제 1 절 현대 세계의 문화 형태

새로운 생활 형태

54. 현대인의 생활 조건이 사회적 내지 문화적 견지에서 깊이 변동되었으므로 가히 인류 역사의 새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주1:사목헌장 서론n.4.이하) 따라서 문화를 보

다 완전하게 발전시키고 보다 널리 확장할 수 있는 새 길들이 열려 있다. 자연, 인간, 사회에 관한 학문의 진보, 기술의 발달, 인간 교류 수단의 발달과 조직화가 이런 새 길들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현대 문화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된다. 소위 "정밀"과학이란 것은 비판적 판단을 매우 발전시켰고, 심리학의 새로운 연구는 인간 활동을 보다 깊이 설명하고, 역사학은 사물을 변화와 진화의 각도에서 관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생활 양식과 관습은 날로 더욱 획일화하고, 집단 생활을 촉진시키는 공업화와 도시화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새로운 문화 형태(대중문화=Massculture)를 조성하며 거기서 새로운 사고 방식, 새로운 행동 방법, 새로운 여가 이용 방법이 생겨나고 여러 민족과 사회 집단 사이의 교류가 증대됨으로써 여러 형태의 문화재가 모든 사람과 각 사람에게 널리 제공되며. 이렇게 보다 보편적인 문화 형태가 마련되어 간다. 이 새로운 문화 형태가 여러 문화의 특색을 보전하면 할수록 인류의 일치는 더욱 촉진되고 표현되는 것이다.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

55. 어느 집단에서난 어느 국가에서나 그 공동체의 문화를 창조하고 꾸미는 삶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진 남녀의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자율 정신과 책임감이 전세계에서 점점 자라고 있다. 그것은 인류의 정신적 내지 윤리적 성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계의 통합이나 또는 진리와 정의로써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눈앞에 놓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형제와 역사에 대한 책임 수행에 입각해서 인간을 규정지을 새로운 "휴머니즘"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다.

난관과 사명

56.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 발전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을 느기는 사람이 보다 높은 희망에 불타면서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모순이 개재하고 있음을 불안해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 집단과 국가 사이에 참된 효과적 대화를 가능케 해야 할 문화의 빈번한 교류가 각 공동체의 생활을 혼란시키거나 선조들의 예지를 파괴하거나 각 민족의 특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통의 유산을 충실히 살리면서 새로운 문화의 활력과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과학과 기술의 위대한 진보에서 형성된 문화와 여러 가지 전통을 더듬는 고전 연구에서 자라는 특성의 계발을 조화시키려 할 때에 특히 큰 문제가 된다.

학문의 특수 분양가 급격히 전문화되고 잇으니 djejg게 하면 이것들을 종합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인간 예지를 발전시킬 관상과 경탄의 능력을 인간들 사이에 보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교양이 날로 고상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니, 세상 모든 사람은 문화 혜택에 참여케 하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내 문화의 소산이라고 주장되는 인간의 자율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순 현세적 내지 반종교적 “휴머니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같은 이율배반속에서도 오늘의 인류 문화는 인간의 온전한 인격을 올바로 조화시켜 향상시키고, 사람들에게 맡겨진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일한 인류 가족 안에서 형제같이 결합되어 자기 임무를 다하도록 모든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 신자들이 불리었기 때문이다.

제 2 절 올바른 문화 발전의 원리

신앙과 문화

57. 그리스도 신자들은 천국을 행한 길손들이므로 천상 것을 찾아 맛들여야 한다.(주2:골로3,1-2) 그렇다고 '해서 보다 인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의무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대되는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는 이 의무를 더욱 열심히 이행하게 하며 이 노력의 완전한 의의를 발견하도록 그들에게 큰 자극과 도움을 제공한다. 이 노력을 통해서 인간문화는 인간사명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인간의 손이나 기술의 힘으로 땅을 개척하여 결실을 내고 땅을 인류 가족 전체의 맞갖은 거처로 만들며 사회 공동체 생활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때에, 이로써 인간은 태초에 알려진 땅의 지배와(주3:창세1,28) 창조의 완성이란 하느님의 계획을 실천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인간 자신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헌신적으로 형제들에게 봉사하라는 그리스도의 큰 계명도 지키게 된다

또한 철학, 역사, 수학, 자연과학 등 여러 가지 학문에 전념하고 예술에 헌신할 제 이로써 인류 가족이 진선미의 보다 높은 개념을 가지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판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함께 정돈하시고 땅 위에서 노시며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신 놀라운 상지(上智=메시아)에 의하여(주4:잠언8,30-31) 인간은 밝게 비추어질 것이다.

이로써 인간정신은 사물의 노예 상태에서 보다 자유롭게 해방되어 보다 쉽게 하느님을 섬기고 관상할 수 있도록 향상된다. 그뿐 아니라, 은총의 자극을 받아 하느님의 "말씀"도 인정할 수 있도록 인간 정신이 준비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만물을 구원하여 당신 안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시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요한1,9-10)

(주5:성 이레네오,"반이단론"Ⅲ,11,8(Sagnard판p.200;동16,6:p.290-292;21,10-22:p.372;22,3:p.378등)

과학과 기술은 그 고유의 방법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되 이런 학문의 연구방법을 진리 발견의 최고 법칙이라고 여길 때,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현상론과 불가지론을 조장하게 된다. 더구나 현대의 발명을 과신하는 나머지 인간은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며 더 높은 것을 찾지 않게 될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행은 현대 문화의 필연적 결과도 아니며 또 그 때문에 현대 문명의 적극적 가치를 부정하도로 유혹을 받아도 안된다. 현대 문화의 적극적 가치로는, 학문의 연구와 학문 연구에 있어서의 진리에 대한 정밀한 충실성, 기술전에 의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국제적 연대의식, 원조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식인들의 증대되는 책임감, 모든 사람들의 생활 조건, 특히 자율성의 박탈과 문화의 빈곤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해 주려는 의욕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이 길은 세상을 구하려 오신 그분의 신적 사랑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현대 문화의 다각적 연관성

58. 구원의 메시지와 인간 문화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혈육을 취하신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당신을 완전히 보여 주시기까지, 당신 백성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각 시대에 고유한 문화에 적응시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시대의 변천을 따라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설교하며 설명하고,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여 깨닫

고, 전례와 여러 계층의 신자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문화의 소산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파견되었으므로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에도, 또 어떠한 특수 관습이나 고금의 어떠한 생활 습성에도 불가분의 배타적 관계로 얽매이지 않는다.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보편적 사명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여러 형태의 문화와 접촉할 수 있고 또 그로써 교회와 여러 가지 문화와 함께 풍요해진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에 떨어진 인간의 생활과 문화를 끊임없이 쇄신하고 언제나 당하는 죄의 유혹에서 생겨나는 오류와 악을 극복하며 제거한다. 또 민족들이 도덕을 계속 정화시키고 향상시킨다. 또한 각 민족과 각 시대의 정신적 자질과 미를 천상 재화로써 내적으로 풍요케 하고 강하게 하고 완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한다.(주6:에페 1,10) 이같이 교회는 그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주7:M.D.Roland-Gosselin신부에게 하신 비오11세의 말씀:"교회의 목표는 문명화가 아니라 복음선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회가 문명화한다면 그것은 복음선포를 말미암아서이다."불란서 사회연구주간,1936년 p.461-462) 그것만으로써도 인간적 내지 시민적 문화를 촉진하고 격려하며 전례 행위를 포함한 교회 활동으로써 사람의 내적 자유를 길러 준다.

여러 문화 형태의 조화

59. 상술한 이유로써 문화는 인격의 전체적 완성을 지향하며 단체와 인류 사회 전체의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경탄, 이해, 관상, 개인적 판단 형성의 능력을 증진시키며, 종교심, 도덕심, 사회 감각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간 정신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의 이성적 내지 사회적 성격에서 직접 기인되는 것이므로 자체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자유와 함께 고유의 원리를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요구한다. 따라서 문화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며, 공동선의 한계내에서 개인의 권리와 개별 단체나 일반 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 일종의 불가침의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거룩한 교회회의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신앙과 이성의 "두 가지 구별된 인식계열"이 있다는 것과, 교회는 "예술과 학문이 제 분야에 있어서 고유한 원리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따라서 이 교회회의는 "이런 자유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인간 문화와 특히 학문의 자율성을 주장한다.(주8:제1차 바티칸공의회"Dei Fillus":Denz1795,1799(3015,3019);비오11세의 회칙"Quadrgesimo

Anno23(1931)p.190.)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윤리질서와 공익을 보장하는 한, 자유로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발표하고 어떠한 예술이든지 자유로이 선택 연마하며 마침내 공적 사건들에 대하여 사실대로의 보도를 받을 수 있기를 요구한다.

(주9:요한23세 회칙"지상의 평화":AAS55(1963)p.260)

공권의 임무는, 문화 형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름지기 모든 시민들 가운데, 국민의 소수단체들 가운데서도(주10:상동p.283;비오12세의 라디오메시지,1941년12월24일:AAS34(1942)p.16-17) 문화 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과 조건을 강구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문화가 제 목적을 이탈하여 정치 권력이나 경제 세력에 강제로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 절 문화에 관한 크리스챤의 몇 가지 긴박한 임무

문화 혜택에 대한 만인의 권리 인정과 그 실현

60. 현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지의 불행에서 해방시킬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조건 등의 차별 없이, 인격 존엄성에 부합하는 문화에 대한 만인의 권리가, 경제면에서나 정치면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세계 어디서나 인정되고 실현되게 하는 기본적 판단을 내리도록 항구히 노력하는 것은 현대에 특히 크리스챤들에게 가장 부합되는 의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의 혜택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겠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나 또는 자율적 활동 가능성의 상실로 공동선을 위한 인간적 협력을 저지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기본적인 문화의 혜택만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능이 미치기만 한다면 누구나 더 높은 연구 단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가능한 대로 자기 재능과 전문 지식에 상응하는 직책과 임무와 봉사를 인간 사회 안에서 다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주11:"지상의평화"AAS55(1963)p.260) 이로써 모든 사람과 각 민족의 모든 사회단체가 타고난 재능과 물려 받은 전통에 상응하는 문화 생활의 발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고 스스로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며 이웃을 도와 주어야 할 의무도 자각하도록 힘껏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사람들의 문화적 향상 노력을 방해하고 문화적 향상 의욕을 파괴하는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민과 공장 직공들의 처지가 그러하다. 이들에게 문화적 향

상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제는 여성들이 거의 모든 생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 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되어야 하겠고, 여성 고유의 필요한 문화 생활 참여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인간 전체의 계발을 위한 교육

61. 여러 분야의 학문과 예술을 종합한다는 것은 과거에 비겨 현대에는 더욱 어려워졌다. 과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지 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짐과 동시에 그것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개인의 능력은 감소되고 있으므로 "보편적 인간상"은 점차로 소멸되어 간다. 그렇지만 지성, 의지, 양심, 형제애 등의 고상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체적 인간상을 유지할 임무는 각 사람에게 남아 있다. 이런 가치들은 창조주이신 하느님한테서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높여진 것이다.

이런 교육의 모체와 양육 기관은 먼저 가정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사랑의 품에 안겨 사물의 바른 질서를 쉽게 배우며 발전하는 젊은이들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세련된 문화 형태에 젖게 된다.

현대에 있어서는 사회에도 이런 교육을 위한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 특히 서적의 광범한 보급과 문화적 사회 교류의 새로운 수단들은 전체 문화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노동 시간의 점차적인 단축은 많은 사람들에게 날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여가는 마음의 휴식과 심신의 건강을 위해 선용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자유로운 활동이나 공부도 좋고 외유로써 재능을 계발하며 인간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또는 운동이나 경기를 통해서 개인과 다네의 정신 균형을 유지하며 어떠한 생활 조건이나 국가나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형제적 관계를 맺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도 좋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현대에 고유한 문화 행사나 집단 활동을 인간적 내지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순화시키도록 서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혜택도 인간 인격에 대한 문화와 학문의 의의를 깊이 반성해 보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계발을 목적하는 인간 교육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조화

62. 교회는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조화는, 우연한 사정으로 언제나 아무런 곤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경험이 증명한다.

이런 어려움들은 반드시 신앙 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신앙을 보다 정확히,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정신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과학, 역사학, 철학 등의 새로운 연구와 발견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이 새로운 문제들은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며 신학자들의 새로운 탐구도 요구한다. 그뿐 아니라, 신학자들은 신학의 고유한 방법과 요구를 따르면서도, 언제나 동시대 사람들에게 교리를 전하기 위하여 보다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유산인 진리와 진리전달의 방법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언제나 같은 뜻과 같은 취지로 전달되어야 한다.(주12:요한23세의 공의회개회사.1962년10월11일:AAS54(1962)p.792) 사목 활동에 있어서는 신학 원리뿐 아니라 세속 학문, 특히 심리학과 사회학의 발견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신자들도 보다 순수하고 보다 원숙한 신앙 생활로 인도될 것이다.

문학과 예술도 그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문화과 예술은 인간 본연의 자질과,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완성시키는 데에 요구되는 인간의 과제와 체험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역사와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발견하고, 인간의 불행과 기쁨, 필요와 능력을 밝혀 주며, 인간의 보다 나은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문예는 시대와 지역을 따라 여러 모양으로 표현된 인간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문예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이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고 정당한 자유를 누리며 보다 쉽게 신자 단체와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교회는 또한 여러 민족과 지방의 특성을 따라 현대 감각에 적응된 새로운 예술 형태를 인정해야 하며 또 그 표현 방법이 전례적 요구에 부합하여 인간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드높여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성당에도 받아들여야 한다.(주13:전례헌장 n.123:AAS56(1964)p.131;바오로6세"로마 예술인들에게 하신 연설":AAS56(1964)p.439-442)

이로써 하느님 인식이 더 잘 드러나고 복음 설교도 인간 지성에 더욱 명백해지며 인간들의 실존 조건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었던 것 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동시대 사람들과의 밀접한 유대 속에서 살며 그들의 능력 계발로 표현되는 그들의 사고 방식과 감각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대 과학과 현대 학설과 신발명의 지식을 그리스도교 도덕과 교리에 결부시켜, 종교심과 도덕감이 과학 지식과 날로 진보하는 기술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진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신자들이 모든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감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신학교나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학문에 뛰어나는 사람들과 힘과

뜻을 같이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학 연구는 계시진리의 깊은 지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동시대와 교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 학문에 교양 높은 사람들을 도와 신앙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협력은 또한 성직자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성직자들은 하느님과 인간과 세계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현대인들이 보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다 적절히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기 때문이다.(주14: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과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교령." 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이 신학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것과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더욱 깊게 해 주기를 바란다. 성직자나 평신도 각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와 사색의 정당한 자유와 각기 전문 분야에 대한 자기 의견을 겸허하고 용감하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주15:교회헌장제4장n.37:AAS57(1965)p.42-43)

제 3 장

경제-사회 생활

경제 생활의 몇 국면

63. 경제-사회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온전한 사명과 전사회의 공동선은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인간이 경제-사회 생활 전체의 건설자요 중심이며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경제는 사회 생활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 증대, 시민, 집단, 민족들간의 긴밀하고 복잡한 관계와 상호 의존, 정치 세력의 빈번한 간섭 등의 특징을 가진다. 동시에 생산 방법, 상품, 봉사(서비스)등의 교류가 진보함으로써 경제는 인류가족의 증가된 필요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불안의 이유가 없지 않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 있어서, 마치 경제의 지배를 받은 것 같으며 그들의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 거의 전부가 경제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거은 집단 경제 체제의 국가에서나 그 밖의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 경제 생활의 발전이 합리적으로, 또 인간답게 지도되고 조정되기만 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때로는 그것을 오히려 격화시키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약간의 사회적 조건을 퇴보시키며 빈자를 경멸하는 방향으로 역전하고 있다. 무수한 대중이 생활 필수품도 소유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

개발 지역에 있어서도, 호화로운 생활로 재화를 낭비하고 있다. 사치와 빈곤이 공존하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지대한 결정권을 누리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빼앗기고 가끔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에 처하게 된다.

비슷한 경제적 내지 사회적 불균형은 농업, 공업, 서비스업 사이와, 동일 국가의 여러 지역 사이에도 개재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대립은 날로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

현대인은 이러한 차별을 날로 더욱 강하게 느낀다. 그것은 현대 세계가 누리고 있는 보다 광범한 기술과 경제력이 불행한 상태를 능히 시정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까닭이다. 여기서 경제-사회 생활의 많은 혁신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교회는 바른 이성이 요구하는, 개인, 사회, 국제 생활을 위한 정의와 평등의 원리를 복음의 빛으로 세기를 통하여 밝혀 왔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선언하게 된 것이다. 공의회는 특히 경제 발전의 요청을 감안하여 이상 원리들을 현대 사정에 맞추어 강화하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1:비오12세의 메시지.1952년3월23일:AAS44(1952)p.273;요한23세의"이태리 노동자들의 가톨릭 운동단체에게 하신 연설,"1959년5월1일:AAS51(1959)p.358)

제 1 절 경제적 발전

인간에게 봉사하는 경제 발전

64.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에 와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인류의 증대하는 소망의 충족을 위하여 농업과 공업의 생산 증가와 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르모르 기술의 발전, 혁신의 정신, 기업체의 설립과 확장, 생산 방법의 적응, 생산에 종사하는 전 종업운들의 끊임없는 노력등, 발전에 이바지하는 온갖 요소를 촉진시켜야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생산의 기본 목적은 단순한 생산품의 증가나 수익이나 지배권력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인간에게 대한 봉사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인간의 물질적 요구와 지적,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생활의 요청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인종과 지역의 차별 없이 각 사람과 사람들로 구성된 모든 집단을 뜻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은 고유의 법칙을 따르면서 윤리 질서내에서(주2:"Quadragesimo Anno":AAS23(1931)p.190ss;비오12세의 메시지,1952년3월23일:AAS44(1952)p.276ss;"어머니와교사":AAS53(1961)p.450;"매스콤교령"제1장n.6:AAS56(1964)p.147) 인간에게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성취도도록 이루어져야 한다.(주3:마태16,26;루가16,1-31;골로3,17)

경제 발전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

65. 경제 발전은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소수의 인간이나 집단의 전제에 맡기거나 한 정치단체나 몇몇 강대국의 전제에 맡겨서는 안된다. 그와 반대로 각계각층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경제 발전 방향 제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임의단체들의 자발적 활동과 공권의 노력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적절히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경제 성장도 각 개인의 기계적 경제 활동에 맡기거나 공권에만 위임해 버려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그릇된 자유를 빙자하여 필요한 개혁을 반대하는 이론과 생산의 집단조직을 개인과 단체의 기본 권리에 선행시키려는 이론은 다 같이 오류이므로 배척해야 한다.(주4:레오13세회칙"Libertas":레오13세 공문서집8권p.220ss;"Quadragesimo Anno::AAS23(1931)p.191ss;"Divini Redemptoris":AAS39(1937)p.65ss;비오12세의 라디오 메시지1941:AAS34(1942)p.10ss;"어머니와 교사":AAS53(1961)p401-464).

그밖에 시민은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참된 발전을 위해서 힘대로 기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요 의무이며 국가도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할 저개발 지역에 있어서 자기 자원을 비생산 상태에 방치해 두거나, 혹은 개인적 이주권은 인정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내지 정신적 원조를 거부하는 사람은 공동선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제거되어야 할 경제 사회의 엄청난 차별

66. 개인의 권리와 각 민족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정의와 평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내지 사회적 차별 대우와 결부되어 가금 증대해 가는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거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겠다.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에 있어서 농민들이 생산과 판로에 특수한 곤란을 당하고 있으므로 생산과 판매를 증진시키고 필요한 개량과 쇄신을 도입하며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농민들을 원조해야 하겠다. 그리하여 가끔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민들이 하등 국민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농민 자신들 특히 젊은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 없이는 농업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주5:"어머니와 교사":AAS53(1961)p.341ss.)

또한 정의와 평등은 경제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변동성이 바로 조절되어 개인이나 가정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불확실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요구한다. 타국이나 타지방 출신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으로써 각기 자기 민족이나 자기 지방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에게 대해서 보수나 노동 조건의 여하한 차별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특히 공권은 그들을 단순히 생산도구로 취급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여 가족들을 불러서 합당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현지 국가나 지방의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할 수 만 있다면 각기 제 출신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일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생산 자동화의 진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공업계의 새로운 형태 속에서 경제 사정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각 사람에게 적합하고 넉넉한 일터를 마련해 주고 적절한 직업적 기술 습득의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 특히 질병과 연령 관계로 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계와 인간의 품위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2 절 경제-사회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몇 가지 원칙

노동, 노동 조건, 여가

67. 물건을 생산하고, 교환하고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노동은 경제 생활의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다. 다른 요소들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노동은 자가 노동이든지 고용된 노동이든지 직접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격은 자연물에 자기 모습을 새기며 자여눌을 자기 뜻에 굴복시킨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형제들과 결합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또한 노동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동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인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자렛에서 손수 일하심으로써 노동의 품위를 높여 주신 것이다. 여기서 충실히 노동해야 할 의무와 노동에 대한 권리가 각 사람에게 생기게 된다. 사회는 절대로 현실정에 따라 국민들이 충분한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또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새산성, 기업의 상황과 공동선을 고려해서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있게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주6:"RerumNOlvarum":AAS23(1890-91)p.649,p.662;"quadragesimoAnno":AAS23(1931)p.200-201;"Divini Redemptoris":AAS29(1937)p.92;비오12세의 성탄메시지,1942:AAS35(1943)p.20;비오12세의 연설,1943년6월13일:AAS35(1943)p.172;4동 교황의 "스페인 노동자들에게 하신 연설"1951년3월11일:AAS43(1951)p.215;"어머니와 교사":AAS53(1961)p.419)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은 여러 사람들의 협동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어느 노동자에게나 피해를 입히게끔 경제 활동을 조직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도 노동자가 자기 일의 노예같이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이것은 결코 경제 법칙이란 구실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생산 노동의 과정 전체가 인간의 필요와 생활의 요구 조건에 적응해야 한다. 먼저 가정생활, 특히 주부에 관하여 언제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기 능력과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히야 한다. 노동자가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시간과 힘을 노동에 바쳐야 하겠지만,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 직업적 노동을 통해서는 계발할 수 없는 능력과 기술을 달리 자유로이 연마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기업 참여, 전 경제 조직 참여, 노동 쟁의

68. 기업 안에서 인가이 서로 결합된다. 즉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서로 결합된다. 따라서 자보주의, 고용주, 지배인, 노동자 등 각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히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모든이가 기업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주7:"어머니와교사":AASp.408,424,426;("Curatio"=운영=경영이란 단어는 "Quadragesimo Anno"에서 취했다):AAS23(1931)p.199;(문제진전에 대해서는 비오12세의 연설을 참조했다)1950년6월3일:AAS42(1959)p.485-488;바오로6세연설,1964년6월8일:AAS56(1964)p.574-579) 그러나 노동자 자신과 그 자녀들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적 내지 사회적 조건을 규정하는 일은 기업체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보다 고차적인 상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가 많으므로 노동자들 자신이나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을 진실로 대표하며 경제 생활의 오바른 질서를 수립하는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권리와, 아무런 보복의 위협 없이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같이 질서있게 암여하며 경제적 내지 사회적 훈련을 쌓는다면, 각가 자기 직책과 의무를 날로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며, 각기 능력과 소질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 사업 전체와 세계의 공동선 실현에 함께 이바지하는 동료임을 자가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내지 사회적 분쟁이 생길 때에는 평화적 해결책을 모생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언제나 우선은 쌍방의 성실한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지만, 오늘의 상황에서도 파업은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론 최후의 필요하고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협상과 타협을 위한 대화의 길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만인을 위한 현세 재화

69.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주8:비오12세의 회칙"Sertum laetitiae":AAS31(1939)p.642;요한23세의 "추기경단에서의 연설,":AAS52(1960)p.5-11;"어머니와 교사":AAS53(1961)p.411) 변동하는 여러 환경에 따라 민족들의 정당한 제도에 상응한 소유권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재화의이 보편적 목적성만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재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사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한다. 즉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뜻이다.

(주9:성 토마스 신학대전,Ⅱ/Ⅱ.q.32,a.5ad2;동q.66,2;그 설명은"Rerum Novarum"에 있다.:AAS23(1890-91)p.651;비오12세 연설,1941년6월1일:AAS33(1941)p.199;동 교황성탄메시지,1954년:AAS47(1955)p.27) 여하간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넉넉한 재화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교부들과 교회 박사들도 이렇게 생각하였으므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치면서 쓰고 남은 것만을 주어서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던 것이다.(주10:성 바실리오,강론"내 창고를 헐리라"(루가복음),n.2(PG31,263);락만시오.,"Divinarum Institutionum,"5권"정의에 대하여"(PL6,565B);성 아우구스티노,요한복음주해50,n.6(PL35,1760);동 시편147의 해설12(PL37,192);서 그레고리오 대교황,복음해설20(PL76,1165);동 교황"사목 규칙서"Ⅲ,21(PL77,87);성 보나벤뚜라, "명제집3권해설"33,1(Kuaeracchi판3권,728);동"명제집4권해설"15,Ⅱ,a,2,q.q(상동4

권,371);"de srperfluo"(아씨시 도서관186사본,p.112a-113a):성 알베르또,"명제집3권 해설"33a,3,1(Borgnet판28권611);명제집4권 해설"15,a,16(상동29권494-497);현대에 있어서 "여분의 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요한23세의 라디오 텔레비젼 메시지,1962년9월11일:AAS55(1962)p.682:"무엇이 여분의 재산인가를 규정할 때에는 타인의 필요를 척도로 삼아야 하고, 재산의 관리와 분배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며 그리스도 신자들의 긴급한 의무인 것이다.") 빈곤의 극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타인의 재화에서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주11:이 경우에 옛 원리가 적중한다."극도의 궁핍을 당하면 모든 것이 공유물이다. 즉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하였었다. 이 원칙을 적용할 이유와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대의 인정된 학자들 외에도 성 토마스 신학대전Ⅱ/Ⅱ.q.66,a.7참조. 물론 이 원칙을 올바로 적용하려면 윤리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계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기아에 신음하고 있으므로 이 공의회는 모든 개인과 정부에 호소하는 바이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대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주12:그라시아노의 교령21장,86절(Friedberg판Ⅰ,302)이 말마디는 이미PL54,591에도 나타나있다.("Antonianum27(1952)p.349-366))하신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하여 각자의능력대로 자기 재화를 나누어 주고 특히 개인이나 국가가 받은 바 원조로써 자조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 주기 바란다.

경제적 후진 사회에 있어서는 재화의 공동 목적성이 부분적으로나마 그 사회에 고유한 관습과 전통으로 말미암아 충족됨으로써 각 사람에게 요긴한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런 관습이 이미 현대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는데도 절대 불변의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 또 한편, 그런 관습이 현대 환경에 적절히 적응되기만 한다면 여전이 유익할텐데 부질없이 정당한 관습을 파괴하려해서도 안될 일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선진국에 있어서는 보험과 보장을 위한 사회제도의 조직이 재화의 공동 목적성을 제나름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특히 문화와 교육에 이바지하는 가정 봉사와 사회 봉사는 아직도 더 촉진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런 제도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사회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빠진다든지 맡은 임무의 책임을 기피한다든지 봉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투자와 통화

70. 투자는 오늘과 내일의 국민을 위한 충분한 노동의 기회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라야 한다. 이같은 투자와 경제 생활의 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국가이건, 누구나 이런 목적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중책을 작가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 개인과 전공동체의 상응한 생활에 요구되는 필수품을 마련해 주도록 배려할 것이며, 다른 편으로는 미래를 예견하여 개인과 집단을 위한 현재 소비의 요청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의 필요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개발 국가와 지역의 긴급한 요청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 통화 행정에 있어서 자국과 타국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약소국가들이 화폐의 가치 변동으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산 취득, 사유권, 대지주

71. 재산 소유와 외적 재화에 대한 사유권의 기타 형태들은 인격 표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사회와 경제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개인이나 단체가 외적 재화에 대하여 일정한 지배권을 취득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유 재산이나 외적 재화에 대한 일정한 지배권은 개인과 가정의 자립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생활권을 제공하는 것이며 인간자유의 연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의무와 책임을 실천케 하는 자극제이므로 시민적 자유의 한 가지 조건도 된다.

(주13:"Rerum Novarum":AAS23(1890-91)p.643-646;"Quadragesimo Anno":AAS23(1931)p.191;비오12세의 라디오 메시지,1941년6월1일:AAS33(1941)p.199;동 성탄메시지,1942년:AAS35(1943)p.17;동 라디오 메시지,1944년9월1일:AAS36(1944)p.253;"어머니와 교사":AAS53(1961)p.428-429)

이같은 지배권과 소유권의 형태는 오늘날 여러 가지고 서로 다르며 또 나날이 더욱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그러나 이 모든 형태는 공공자금과 사회의 보장을 받는 권리와 봉사에 구애됨이 없이 아직도 경시할 수 없는 보장이 원천으로 남아 있다. 이 것은 물질적 소유에 관해서뿐 아니라 직업적 능력과 같은 비물질적 재원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유권은 여러 형태의 공공소유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유화는 정당한 권력기관에 의하여, 공동선의 요구를 따라, 그 한계내에서, 공정한 보상이 지급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밖에 누구나 사유 재산을 공동선에 반대해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은 국가 당국의 책임이다.

(주14:"Quadragesimo Anno":AAS23(1931)p.214;"어머니와 교사":AAS53(1961)p.429)

사유 재산 자체가 본질상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사회적 성격은 재화의 공동 목적법칙에 바탕을 두었으므로(주15:비오12세 성령강림 라디오메시지,1941년:AAS44(1941)p.199;"어머니와 교사":AAS53(1961)p.430) 이를 무시하면 재산 소유는 가끔 탐욕과 중대한 혼란의 계기가 되며 소유권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공박자들에게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많은 저개발 지역에 광대한 농토가 혹은 반쯤 경작되고 혹은 사리의 목적으로 전혀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국민의 대부분은 땅을 전혀 가지지 못했거나 극히 좁은 땅밖에 가지지 못했으며, 또 한편, 농산물의 증수가 긴급히 요청되는 것이 명백하다. 지주에게 고용된 사람이나 소작인으로 토지의 한 부분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급료나 보수는 흔히 인간 품위에 부당하게 적은 것이고 마땅한 주택도 없으며 중개인들에게 착취당하는 이로 드물지 않다. 그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행동할 능력이라곤 거의 박탈당하고, 개인적 종속 관계에 살고 있으므로 문화적 진보나 사회적 내지 정치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도 전혀 금지당하고 있다. 이같은 여러 경우에 많은 개혁들이 필요하다. 수입의 증가, 노동 조건의 개선, 고용 보장의 증가, 자발적 노동의 장려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미개척 농지는 그것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잇는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하겠다. 이 경우에는 자금과 함께 필요한 수단도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을 위한 원조와 효과적인 협동 조직을 위한 능력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동선이 사유 재산의 수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모든 환경을 참작해서 공정한 보상을 주도록 고려해야 한다.

경제-사회 활동과 그리스도 왕국

72. 현대의 경제 내지 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정의와 사랑을 위해 투쟁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자신이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신할 것이다. 이같은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절대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얻어,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충실하며 현세 활동에 있어서 바른 질서를 보존하고 개인적 내지 사회적 생활 전체가 진복팔간의 정신, 특히 청빈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하겠다.

그리스도께 순중하며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보다 굳세고 보다 순결한 사랑을 받아 제 모든 형제를 도와 주고 사랑의 충동으로 정의의 사업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주16:재산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은,루가3,11;10,30ss;1베드5,3;마르8,36;12,29-31;야고5,1-6;1디모6,8;에페4,28;2고린8,13;1요한3,17ss)

제 4 장

정치 공동체의 생활

현대의 공공 생활

73. 현대에는 민족들의 구조와 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발견된다. 이런 변화는 민족들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결과로서, 정치적 공동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시민적 자유 행사와 공동선 추구를 위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 또 국민 각자의 상호 관계와 국민 각자와 공권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에 큰 영향을 준다.

인간 존엄성의 자각이 보다 생생해짐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공공 생활에 있어 인권을 더 잘 보장해 줄 정치 내지 법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사간의 종교 자유 등이다. 사실, 인권 옹호는 국민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국가 생활과 국가 통치에 적극 참여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의 생활을 질서짓은 일에 보다 큰 역할을 하려는 강한 의욕을 품게 된다. 국내의 소수파가 정치 공동체에 다해야 할 의무를 등한시함은 없이, 이 소수파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열의가 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불타고 있다. 또한 의견을 달리하고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도 날로 커져가며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권을 향유하도록 힘쓰는 협력도 더욱 널리 확대되어 간다.

그와 반대로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고 탐욕과 정치범의 회생자를 격증시키며 공동선을 위하지 않고 당리나 집권층이 이익만을 위해서 권리 행사를 남용하는 정치 형태는 어느 것이나 다 배제되어야 한다.

참으로 인간다운 정치 생활을 확립하려면 정의와 선의와 공동선에 봉사하려는 정신을 길러 주고 정치 공동체의 성격과 공권의 목적, 그 바른 행사, 그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 신념을 공고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치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

74. 시민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가정, 여러 집단은 자신들만으로써는 완전한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을 작가하고 끊임없이 보다 나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매일 힘을 합할 수 있는 보다 큰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주1:“어머니와 교사”:AAS53(1961)p.417) 그러므로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선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된다.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보다 완전하게 보다 쉽게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 생활의 모든 조건들의 총체를 내포한다.(주2:상동.)

그러나 각양각색의 많음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므로 그들의 의견도 십인십색(十人十色)일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각기 제 의견만 고집함으로써 정치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며, 이 권력은 기계적이거나 폭군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유와 책임 의식에 뿌리받근 도덕적 힘으로서 전국민의 힘을 공동선에로 향해 주는 권력이라야 한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와 공권은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비록 정치 체제와 집권자 지명이 국민들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정치 공동체와 공권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음이 명백하다.(주3:로마13,1-5)

또한 정치 권력 행사에 있어서도 공동체 자체에서나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나 언제나 윤리 질서의 한계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미 제정된, 혹은 제정될 법 질서를 따라, 공동선을 -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목적삼아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국민들은 복종해야 할 양심상의 의무를 가진다.(주4:로마13,50) 여기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책임성과 그 품위의 중요성이 뚜렷해진다.

공권의 월권 행위로 국민이 억압을 당하는 경우라도 국민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공권 남용에 항거하여 자연법과 복음이 보여 주는 한계내에서 자신과 동포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정치 공동체가 자체의 구조와 공권을 규제하는 구체적 방법은 서로 다른 국민성과 역사의 발전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인류 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교양있고 평화롭고 누구에게나 호의를 품은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

공동 생활에서의 만인의 협력

75. 정치 공동체의 법적 기초의 설정, 국가의 통치, 여러 기관들의 영역과 한계의 규제, 위정자 선출 등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아무런 차별 없이, 언제나 더 잘,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능성을 제공하는, 법적 정치 구조를 발견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주5: 비오12세 성탄 라디오 메시지, 1942년: AAS35(1943) p.9-24; 1944년12월24일: AAS37(1945) p.11-17; "지상의평화": AAS55(1963) p.263,271,277,278) 따라서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유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국가 복지에 헌신하며 이런 임무의 중책을 수락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교회는 찬양하며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의무의식을 수반하는 국민들의 협력이 매일의 국가생활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권의 기능과 기관을 적절히 구분하고 권리를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독립적 법 제도 가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와 함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집단의 권리 및 권리 행사가 인정되고 지켜지고 촉진되어야 한다.

(주6: 비오12세 라디오 메시지, 1941년6월7일: AAS33(1941) p.200; "지상의 펴화": AAS p.273-274) 국민의 의무 중에는 공동선을 위하여 물질적 내지 인격적 봉사를 국가에 바칠 의무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정자들은 가정, 사회 단체, 문화 단체, 중간 단체나 조직 등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효과적 활동을 금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기꺼이 질서있게 촉진하도록 힘 쓸 것이다. 국민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과도한 권한을 국가에 맡기지도 말고 또 개인과 가정과 사회 단체의 책임을 감소시킬 정도로 지나친 편익과 혜택을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현대 환경의 복잡성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추구하는 국민과 집단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보다 적합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권은 가끔 사회, 경제, 문화 면에 부득이 개입하게 된다.

개인의 자주성이나 개인의 진보와 사회화(주7:"어머니와교사":AAS53(1961)p.416)사이의 관계는 지역적 차이와 민족들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달리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선 때문에 권리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환경이 변하면 곧 자유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치 권력이 개인과 사회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제주의나 독재 형태를 취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국민은 조국에 조국에 대하여 충실하고 너그러운 애국심을 길러야 하겠지만, 너무 편협된 정신을 버리고, 인종과 민족과 국가 등의 여러 가지 관계로 서로 결합된 인류 가

족 전체의 복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의 특별한 고유 사명을 느껴야 한다. 이 사명은 신자들이 의무에 대한 책임 의식과 공동선에 대한 봉사의 빛나는 모범이 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신자들은 권력과 자유, 개인의 창의와 사회 단체의 연대성과 그 요구, 필요한 통일성과 결실많은 다양성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를 실제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현세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면 인정해야 하고, 이런 의견을 정당하게 변호하는 시민이나 단체들을 존경해야 한다. 정당들은 공동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를 촉진해야 하며 당리를 공동선에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된다.

공민 교육과 정치 훈련은 국민 대중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요긴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정치 공동체 생활에서 각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려우면서도 극히 고상한 정치 기술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준비를 갖추어 자신의 편익이나 물질적 이익을 생각지 말고 정치에 종사하기를 바란다. 부정과 탄압, 일개인이나 일정당의 전제와 불관용에 항거하여 청렴결백과 지혜를 다하여 투쟁하며, 성실과 공평, 사랑과 정치적 용감으로써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기 바란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

76. 특히 다원적 사회에 있어서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아야 하며, 신자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양심에 따라, 시민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사목자들과 함께 행하는 일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그 직무와 권한으로 보아 절대로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아무런 정체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 동시에 인격 초월성의 표지요 수호자인 것이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분야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양자 다 같이, 명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내지 사회적 사명에 봉사한다. 양자가 장소와 시간의 환경을 고려하며 서로 건전한 협력을 더 잘 하면 그럴수록 이 봉사는 더욱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실현될 것이다. 사실, 인간은 현세적 질서권내에만 제약받지 않고 인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영원한 성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교회는 구세주의 사랑을 바탕삼아 국내와 국제 간에 정의와 사랑이 널리 실현되도록 이바지한다. 교회는 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가르침과 신자들이 보여주는 증거를 통하여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를 비추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까지도 존중하고 촉진한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그리고 이들의 협력자들은 사람들에게 구세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파견되므로 자신들의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하느님 능력에 의존한다. 하느님은 가끔 당신을 증거하는 사람의 약점 안에서 복음의 위력을 드러내신다. 과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에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에 고유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보아 지상 국가의 수단과는 판이하다.

확실히 현세 사물과 인간 조건에 있어서 현세를 초월하는 것과는 서로 깊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도 이 고유의 사명이 요구하는 한계내에서 현세 사물을 이용한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 권력이 제공하는 특권에 희망을 걸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당한 기득권의 행사도 교회 증언의 성실성이 의심을 받게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생활 조건이 다른 규범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기득권의 행사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자기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직무를 지장없이 수행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는 복음에 일치하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복지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두 또 그 방법만을 사용한다.

인간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진선미는 어떤 것이나 다 보호하고 높여 주는 것을(주9:교회헌장n.13:AAS57(1965)p.17) 의무로 삼는 교회는 복음을 추실히 따르며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견고케 한다.(주10:루가2,14)

제 5 장

평화의 증진과 국제 공동체의 촉진

서 론

77. 전쟁의 광란과 위협에서 오는 심한 고통과 불안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 가셔지지 않은 오늘날, 인류 가족 전체는 그 성숙 과정의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인류는 점차로 결합되어 어디서나 이미 이 일치를 보다 깊이 의식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디서나 참으로 보다 인간다운 세계를 이룩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화

를 찾아서 새로이 회심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성취할 수는 없다. 여기서 평화의 건설자는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5,9) 행복하다고 선언한 복음의 메시지가 인류의 고상한 노력과 소망에 부합되며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진실하고 숭고한 평화의 뜻을 해명하며 전쟁의 야만성을 단죄하고, 평화의 주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정의와 사랑에 뿌리박힌 평화를 확립하고 평화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는 바이다.

평화의 본질

78.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세력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보다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인류의 공동선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법칙에 지배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평화는 한번도 영구히 얻어진 것이 아니고 어제나 꾸준히 건설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위에 인간의 의지는 약하고 죄의 상처를 입었으므로 평화을 얻으려면 각 사람이 끊임없이 야욕을 억제하고 정당한 권력이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개인의 복지가 안전하게 확보되고 사람들이 정신과 재능의 자원을 서로 신뢰로써 나누지 않고서는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타인과 타국민, 그리고 그들의 품위를 존경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형제애의 성실한 실천이 평화건설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평화는 정의의 내용을 초월하는 사랑의 결실이다.

현세의 평화는 이웃에게 대한 사랑ㅇ의 결과이며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모상이며 결실이다. 강생하신 성자는 평화의 임금으로서 당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한 백성, 한 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일치를 재건하시고 당신 육신 안에서 미움을 죽이시고 부활로 현양되시어 사랑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부어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사랑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참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치하여 평화를 찾아 건설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권리를 옹호함에 있어 폭력을 쓰지 않고 약자에게도 가능한 방위 수단을 택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정신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단, 그 방위 수단이 타인이나 타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죄인인 한,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는 전쟁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지만, 인간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죄를 극복한다면, 폭력도 극복할 것이다. 그 때에는 "칼을 볼에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들 것이니, 나라끼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 훈련도 하지 않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채워질 것이다.

제 1 절 전쟁 회피

전쟁의 야만성 방지

79. 최근의 전쟁이 현대 세계에 물질적 내지 윤리적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일같이 땅 한 구석에서는 전쟁의 참화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각종 과학 무기가 전쟁에 사용되므로 전쟁의 잔혹성은 전투 용원들을 과거에 일찌기 없었던 극도의 야만 상태로 몰아 넣을 우려가 있다. 복잡한 현대 환경과 혼란한 국제 관계는 암계와 전복의 새로운 방법인 게릴라전의 장기화를 허용하고 있다. 가끔 테러 행위가 마치 전쟁 수행의 새로운 방법인 양 간주되고 있다.

공의회는 이같이 퇴폐해 가는 인류의 상태를 눈앞에 보며 무엇보다 먼저 국제 자연법과 그 보편적 윤리가 지니고 있는 불변의 가치를 상기시키려 한다. 인류의 양심 자체가 이런 원리들을 더욱 강력히 주장한다. 따라서 고의로 이런 원리를 위반하는 행동과 그런 행동을 종용하는 명령은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맹목적 복종이 이런 명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악랄한 행위 중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획적으로 국민 전체나 국가나 소수의 이민족을 전멸하는 행위를 들어야 하며 이것은 무서운 범죄 행위로 철저히 규탄되어야 한다. 반대로. 이런 범죄를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반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는 최상의 찬사를 받을 만하다.

전쟁 문제에 관해서는 군사 행동과 그 결과의 비인도성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고 제법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가맹하였다. 예컨대, 부상병이나 포로들의 처우에 관한 조약 같은 것이다. 이런 조약을 지켜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특히 공권들과 이 문제의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조약들을 개선하여, 전쟁의 비인도성을 보다 잘,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며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달리 인간다운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분명 인간 사회에서 전쟁이 뿌리뽑힌 것이 아니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충분한 힘과 권한을 가진 국제적 권력이 없는 동안에는, 모든 평화적 타협 방법을 시도해 본 연후라면 각 정부의 정당 방위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국가 원수들과 국정의 책임을 분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듯이 중대한 일을 신중히 처리하며 맡겨진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백성의 정당방위를 위한 군사 행동과 타국을 정복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기에 전력 보유 자체가 군사적 내지 정치적 전력 사용을 무조건 정당화시킬 수도 없고 또 불행히 전쟁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써 적대국가의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조국에 봉사할 목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 주는 역군으로 생각할 것이며 이 임무를 바로 수행함으로써 참으로 평화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전면 전쟁

80. 과학 무기의 진보로 전쟁의 공포와 죄악성은 무한히 커졌다.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 행위는 막대한 무차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이런 파괴는 이미 정당 방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행위이다. 더구나 강대국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과학 무기를 그대로 전부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무기 사용에서 오는 세계의 광범한 황폐와 파괴적 결과는 제쳐놓고서도 적대진영 쌍방의 보복적 상호 살육행위가 거의 전면적으로 감행될 것이다.

이 모든 사정을 온전히 새로운 태도로 재검토하기를 강요한다.(주1:"지상의 평화,"1963년4월11일:AAS55(1963)p.291:"원자력을 자랑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침입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에 전쟁이 합당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불합리하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전쟁 행위에 대하여 엄히 심판받을 것을 알아야 한다. 미래의 세계 역사가 현대인들이 오늘 내리는 결정에 좌우되겠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거룩한 교회회의는 전면 전쟁을 단죄할 근대 교황들의 선언을(주2: 비오12세 연설, 1954년9월30일: AAS46(1954) p.589; 라디오메시지, 1954년12월 24일: AAS47(1955) p.15ss; "지상의 평화,": AAS55(1963) p.286-291; 바오로6세의 "UN에서의 연설, "1965년10월4일)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다시 선언하는 바이다.

도시 전체나 광범한 지역을 그 주민들과 함께 무차별 전멸시키려는 전쟁 행위는 모두 다 하느님과 인간 자신을 거역하는 범죄이므로 단호히 단죄하기를 주저치 말아야 한다.

현대 전쟁의 특수한 위험은, 현대식 과학 무기를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범죄의 기회를 주기 쉽고, 일종의 냉혹한 연쇄 반응으로 인간 의지가 극도의 참혹한 결정을 내리도록 충동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같은 일이 장래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세계의 주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국가원수들과 군사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느님과 전인류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이 막중한 책임을 언제나 명심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이다.

군비 경쟁

81. 과학 무기는 전시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증강되지는 않는다. 각국의 방위력은 적에 대한 신속한 보복력에 달려 있다고 여기므로, 해마다 증대되는 군비 확장은 비정상적 방법이기는 하지만 혹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적을 제압하는 힘이 된다. 오늘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제간에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잇는 모든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같은 방지책에 관해서는 어떻든간에, 제법 많은 국가들이 보호책이라고 생각하는 군비 경쟁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책도 아니려니와 그로써 이루어지는 소위 힘의 균형도 확실하고 진실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확신해야 한다. 그로써 전쟁요인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신무기의 군비를 위하여 엄청난 재화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전세계의 현대의 숱한 비참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서 있지 않다. 국제간의 분쟁이 참으로, 또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세계의 다른 지역에까지 번져 가고 있다. 이같은 스캔들을 제거하고 중압적인 불안에서 세계를 해방시켜 참 평화를 회복하려면 정신의 개혁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비 경쟁은 인류의 막심한 상처이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견딜 수 없도록 해치는 일이라고 재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군비 경쟁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한번 온갖 치명적 재앙이 오고야 말 위험이 크다. 그 길은 이미 열리고 있다. 인류가 자초한 이 재앙을 깨닫고 우리부터 우리에게 허용된 현재의 유예 기간을 이용하여 우리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며 보다 인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하겠다. 하느님의 섭리는 옛부터 전쟁의 노예로 살아오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해방되기를 요구하신다. 만일에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들어선 이 악의 길이 우리를 어디고 끌고 갈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전쟁 금지와 회피의 국제 협력

82. 그러므로 여러 나라가 뜻을 합하여, 어떤 전쟁이든지 절대로 금지할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적 공권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 공권이 모든 국가의 안전과 정의의 준수와 권리의 존중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권한을 보유해야 하다. 이렇게 바람직한 권력이 설치되기까지는 현재의 국제 최고기관들이 공동 안전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합한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활 것이다. 평화는 무기의 위협으로 여러 국가에 강요하느니보다 여러 국가들의 상호 신뢰에서 발생해야 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군비 경쟁에 종지부를 찍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비 축소를 실제로 시작하려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협정으로 보조를 맞추어, 유효하고도 진실한 보장 밑에서 진행되어야 한다.(주3:"지상의 평화,"에서 군비축소에 관한 말씀은,:AAS55(1963)p287에 보라.)

그 때까지는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종래의 노력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을 없애 보려고 노력하는 많은 위정자들의 선의를 북돋아 주어야 하겠다. 그들은 최고 임무 수행에 억눌리면서도, 또 현실의 복잡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맡겨진 책임이 중함을 느끼는 까닭에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치며 그들로 하여금 평화를 힘차게 건설하는 이 위대한 인간애의 사업을 인내로이 계속하고 용감하게 성취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다. 이 사업이 오늘 명백히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자국의 국경 밖으로 넓히며 민족적 이기심과 타국 지배의 야욕을 퇴기하는 동시에, 보다 완전한 일치를 향하여 수고로이 이미 전진하고 있는 전인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기르는 일이다.

평화와 군비 축소문제에 관하여 끊임없이 열심히 계속되어 온 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한 국제 회합들은 이 중대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보아야 하겠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하겠다. 그러나 스스로는 무관심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노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기 민족의 공동선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또한 전세계의 복지를 촉진하는 사람들로서 대중의 여론과 감정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적의와 경멸과 불신의 감정이나 인종적 증와 완고한 이데올로기들이 인간들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한, 그들이 아무리 평화 건설에 힘스더라도 아무 소용도 없다. 여기서 정신의 재교육과 새로운 여론 형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므로 교육자들, 특히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평화 애호의 새로운 감정을 길러 주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중대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하겠다. 우리는 모두 인류의 개선을 위하여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과업과 전세계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쳐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된 희망에 속지 말아야 한다. 사실, 적의와 증오가 가셔지고 세계 평화를 위한 견고하고 정당한 조약이 체결되지 안는 한, 이미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는 과학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서도 무서운 죽음의 평화 외에는 다른 평화를 맛볼 수 없는 불행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가 지닌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경고하면서도 굳은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다. 교회는 현대를 향하여, 기회야 좋든지 나쁘든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사도 바오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지금이 바로 은총의 시기요, 지금이 그 구원의 날"(주4:2고린2,6)이라고 외치고자 한다.

제 2 절 국제 공동체의 건설

불화의 원인과 극복 방법

83. 평화의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불의의 뿌리부터 뽑아버림으로써 전쟁의 온상인 불화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불화의 대부분은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과 그 대책의 지연에서 온다. 또 일부는 지배욕과 인간 경멸에서 생긴다. 좀더 깊은 원인을 찾는다면, 인간적 질투심, 불신, 교만, 기타 이기적 사욕에서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서의 문란을 인간은 견디기 어려우므로, 비록 열전은 없더라도 세계는 끊임없이 인간들의 분쟁과 폭력을 겪으며 고민하게 된다. 또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악조건이 개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극복하고 예방하며 폭력의 방종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 기관들의 협력과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평화 촉진을 위한 조직체 구성의 쉴 줄 모르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민족들의 공동체와 국제 기관

84. 전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국민들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가는 오늘, 세계의 공동선을 적절히 추구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들의 공동체는 이제 현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질서를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견딜 수 없는 궁핍에 아직도 신음하는 여러 지역을 위한 조직체가 필요하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공동체의 기관들은 각기 제 나름으로 사람들의 갖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사회 생활 분야에 있어서는 식량, 건강, 교육, 노동에 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적으로 생길 수 있는 특수 상황속에 있어서는 예컨대 발전 도상에 잇는 국가들의 성장을 위1한 원조, 전세계에 산재하는 난민들의 구조, 혹은 이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대한 원조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세계적 혹은 지역적 기존 국제 기관들은 분명 인류를 위하여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것들은 세계 도처에서 발전 향상을 도모하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미연에 방지하려는 현대의 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인류 공동체의 국제적 기초를 놓으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신자들과 비신자들 사이에서 꽃피고 있는 참된 형제애의 정신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정신은 곤경에 빠진 무수한 사람들의 구조를 위한 노력들을 보다 진지하게 만들도록 힘쓴다.

경제 분양의 국제 협력

85. 인류의 현대적 일치는 국제 분야에 있어서도 보다 광범한 국제 협력의 확립을 요구한다. 거의 모든 민족이 독립은 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불평등과 온갖 형태의 종속 상태에서 이미 해방되고 국내적 난문제의 온갖 위험을 극복하였다고 하기에는 아직 요원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성장은 인적 원조와 재정적 원조에 달렸다. 국가마디 국민을 직업적 교육과 훈련으로써 경제-사회 생활의 여러 임무를 수행하도록 양성해야 한다. 이 목적으로 외국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지배자로 자처하지 말고 원조자와 협력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현대 세계의 상거래 관습이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고서는 발전 도상의 국가들은 아무런 물질적 원조도 받을 수 없을 거시다. 그 외에, 선진국가들은 증여, 차관, 투자 형식의 다른 원조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원조는 한편으로 야욕없이 관대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다른 편으로는 성실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진실한 세계적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면 수익에 대한 지나친 집착, 국가적 야심, 정치적 지배욕, 군사적 타산, 이데올로기의 선전과 강압 등을 배제해야 한다. 여러 가지 경제-사회 체제가 있으나 여기서 바라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이 건전한 세계적 상거래의 공통 기반을 발견하는 그것이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선입견을 버리고 성실한 대화에 임할 각오를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몇 가지 유익한 기준

86. 이같은 상호 협조를 위해서 다음의 기준들이 유익할 것이다.

a) 발전 도상의 민족들은 발전의 목표로서 자기 국민들이 온전한 인간 완성을 확고하고 명백한 태도로 지향할 것을 마음깊이 명심할 것이다. 발전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민족의 노력과 재능에서 시작되고 진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전은 외국 원조분 아니라 먼저 자국 자원의 충분한 활용과 자국의 특성과 전통 육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솔선 수범해야 할 것이다.

b) 발전 도상의 민족들이 상술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원조해야 할 선진국들의 의무는 중대하다. 따라서 선진 국가들은 이같은 세계적 협력 확립에 요구되는 자국의 정신적 내지 물질적 조정을 완수해야 한다.

또한 약하고 가난한 국가들과의 무역에 있어서 약소국들의 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산품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c) 경제 발전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일은 국제 공동체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 목적에 소요되는 자원들을 가장 유효하고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상호 보완의 원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경제 관게를 정의의 규범을 따라 조정하는 일도 국제 공동체의 의무이다.

국제 무역, 특히 저개발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하고 조정하며 또한 국가간의 힘의 과도한 불균형에서 오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기술적, 문화적, 재정적 원조를 겸한 이런 조정으로써 발전하려는 국가들에게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경제 성장을 알맞게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많은 경우에 경제적 내지 사회적 구조들을 시급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숙한 해결책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인간에게 물질적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그의 정신적 향상에 배치되는 해결책은 조심할 것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마태4,4)이기 때문이다. 인류 가족의 부분인 각 민족은 그 안에, 그 훌륭한 전통 속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기원을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맡겨 주신 정신적 보화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

87. 오늘날 여러 곳에서 다른 허다한 난관 외에도 특히 급격한 인구 증가에서 오는

난관을 겪고 잇는 민족들에게 관한 국제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모든 국가들, 특히 부유한 국가들의 충분하고도 아낌없는 협력으로써, 인간의 식량과 적절한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인류 공동체에 분배하는 방법이 긴급히 모색되어야 하겠다. 어떤 민족들은, 만일 마땅히 교육을 받고, 재래의 경작법 대신에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여 지혜롭게 환경에 적응시키고, 사회 질서를 개선하여 사유지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 조정한다면, 그들의 생활 조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내의 인구 증가 문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예컨대 사회와 가정에 관한 입법,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국가의 상태와 필요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이 문제에 관해서 몹시 동요되고 있으므로 이 모든 일에 관해서 가톨릭 전문가들은 특히 대학에 있어서 연구와 계호기울 꾸준히 계속하여 더욱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

세계의 인구 증가, 혹은 적어도 일부 구가들의 인구 증가를 모든 방법과 공권의 온갖 개입으로써 근본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권고하는 바이니, 도덕률에 배치되는 해결책은 비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권장되고 때로는 강제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야 하다. 결혼과 산아에 대한 인간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에 따라, 출생할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양친의 바른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절대로 공권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 부모의 판단은 바로 형성된 양심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시대와 가정의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신법을 존중하는, 올바르고 참으로 인간다운 책임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여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어디서나 교육 사정과 사회 조건이 개선되고 특히 종교교육이나 적어도 충분한 도덕적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산아 조절에 있어서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연구의 진보에 관해서는 그 확실성이 증명되고 윤리 질서에 부합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원조 사업에 관한 신자들의 임무

88. 정당한 자유의 존중과 모든 사람들의 형제애로써 국제 질서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은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 협력할 것이다. 더구나 세계의 대부분이 아직도 극심한 곤궁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당신 제자들의 사랑을 호소하시는 것 같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국민의 대부분이 그리스도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풍부한 재화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생활 필수품도 없이 기아와 질병과 온갖 불행에 시달리고 있는

“스캔달”은 제거되어야 하겠다. 청빈과 사랑의 정신은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이요 증명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원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을 찬양해야 하고 또 도와 주어야 한다. 진정, 현대의 불행을 힘대로 덜어 주는 일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의무이며, 여기에 있어서 주교들은 말과 모범으로 선봉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옛 교회의 관습대로, 쓰고 남는 것만을 애긍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몫에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원조금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일은 엄격하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도, 교구내, 국내 그리고 전세계에 있어서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그리스도교 형제들이 공동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사랑의 정신은 사회 활동과 자선 활동의 신중하고 질서있는 실천을 금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 도상의 국가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적당한 기관에서 합당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제 공동체 안의 교회의 효과적 현존

89.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은총의 보화를 나누어 줄 때에, 세계 도처에 평화를 확립하고 신법과 자연법을 인식시킴으로써 인간들 사이와 민족들 사이에 형제적 연대성의 확고한 기초를 놓은데에 공헌한다. 따라서 교회가 사람들의 협력을 장려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교회는 민족들의 공동체 한가운데 현존해야만 하겠다. 이같은 교회의 현존은 교회의 공적 기관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겠다는 유일한 소망을 품은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완전하고 성실한 공동 노력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자들 자신이 인간으로서, 또 신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자각하고 자기 생활 환경에서 국제 공동체와 지체없이 협력하려는 봉사정신을 환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 교육에 있어서나 공민 교육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하여 젊은이들을 교육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기관에서의 신자들의 역할

90. 그리스도 신자들의 국제적 활동의 뛰어난 형태는,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

으로 이미 설립되었거나 앞으로 설립될 기관 자체내에서 개인적으로든지 혹은 단체적으로 협력하는 그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가톨릭의 여러 국제 단체들도 평화와 형재에의 기초위에 민족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잘 훈련된 협력자들의 수와 필요한 보조 수단을 증가시키고 활동능력을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이런 단체들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에 있어서는 활동의 효율성과 대화의 필요성이 공동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같은 단체들은 분명 가톨릭 신자들에게 부합한 세계 감각을 발전시키며 참으로 세계적인 연대성과 책임감의 자각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공헌한다.

마침내 가톨릭 신자들은, 국제 공동체 안에서 그 임무를 올바로 완수하기 위하여, 함께 복음적 사랑을 고백하는 갈라진 형제들이나 또는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공의회는 인류의 대부분을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 재앙이 많음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가는 곳마다 장려하기 위하여 전 교회의 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기관의 목적은 빈곤한 지역들의 발전과 민족들간의 사회정의를 촉진하도록 가톨릭 공동체를 격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맺 음 말

신자 개인과 지역 교회의 임무

91. 이 거룩한 교회회의는 교회의 가르침의 보고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설명함으로써, 하느님을 믿거나 명백히 인정치 않거나를 막론하고 현대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 주려는 바이다. 모든 현대인이 지닌 사명 전체를 보다 명백히 깨닫고, 세계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에 더욱 부합시키고, 보다 깊이 뿌리박힌 세계적 형제애를 추구하며, 사랑의 충격을 받아, 아낌없는 공동 노력으로 현대의 긴급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려는 바이다.

그러나 세계의 환경과 문화 형태가 심히 서로 다르므로 공의회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일반적인 것만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공의회는 교회 안에서 이미 공인된 교리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과제를 대상삼고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그것을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의 정신을 따라 여기에 진술된 것 중에서 많은 것은, 특히 그리스도 신자들이 사목자들의 지도 밑에 각 민족의 상황과 사고방식에 적응시켜서 그

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굳이 믿는 바이다.

모든 사람들 사이의 대화

92. 복음의 메시지로 전세계를 비추고 온갖 민족과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을 모두 한 성령 안에 모으는 교회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실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느 형제애의 상징이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자체 안에서 사목자나 그 밖의 신도들을 막론하고 한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온갖 정당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존경과 존중과 화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신자들을 갈라놓는 요인보다 신자들을 일치시키는 요인이 훨씬 강한 것이다. 필요한 일에 있어서 일치하고 불확실한 일에 있어서 자유를 존중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또 아직 우리와 완전히 일치해 살지 못하는 형제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포옹한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과 사랑의 끈으로 그들과 일치하고 잇으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날 그리스도 신자들이 일치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일치가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진전되면 될 수록 그만큼 전세계를 위해서도 일치와 평화의 징조로 나타나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합하고, 이 숭고한 목적을 오늘날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날로 더욱 적합하게 개선해 나가며, 동시에 힘써 날로 더욱 복음의 정신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자녀들의 가족에로 불리는 인류 가족에게 봉사하도록 형제적 사랑으로 협력해야 하겠다.

다음에는 하느님을 인정하고 고귀한 종교적 내지 인간적 요소를 그 전통 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관심을 돌리며 모든 사람이 성령의 권유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실천할 수 있기 위하여 솔직한 대화가 우리들 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편에서 본다면, 진리에 대한 사랑만이 이루어 주는 대화의 소망은,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하겠지만 아무도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인간 정신의 고귀한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 원천인 창조주는 인정치 않는 사람이나 또는 교회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제외하지 않는다. 하느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시며 목적이므로 우리는 모두 형제되기 위해 불리었다. 따라서 우리

는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폭력도 기만도 없이 참된 평화 속에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해야 하겠다.

세계 건설과 완성

93.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13,35)하신 주의 말씀을 아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현대 세계의 사람들엑 보다 너그러이 보다 효과있게 봉사하는 일보다 더 열렬히 갈망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복음을 충실히 따르며 복음에서 힘을 얻는 신자들은 정의를 사랑하고 찾는 모든 사람과 일치하여 지상에서 완수해야 할 위대한 과업을 책임졌으며,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느님께 이 과업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바쳐야 할 것이다. “주여, 주여”한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힘들여 일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서 형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말과 실천으로써 실제로 사랑하며, 이로써 진리를 증명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를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생생한 희망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 희망은 성령의 선물이며 마침내 한번은 주의 영광이 빛나는 고향에서 최고의 평화와 행복에 받아들여지리라는 희망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에페3,20-21)

이 사목헌장에서 말한 각 조항과 그 전체에 성스러운 공의회의 교부들이 찬동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된 사도적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인준하고 결정하고 제정하여, 공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포하기를 명하는 바이다.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1965년 12월 7일
가톨릭 교회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